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1922년 기독 여성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창립한 한국YWCA가
2022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고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YWCA가 되겠습니다

한국 YWCA

2021년 11·12월호
NOV · DEC Vol.575

기획 한국YWCA 100주년, Go 100 Beyond 100
한국YWCA 역사전시관, 채플실 개관
한국YWCA, Beyond 100!

기후위기와 여성
대선에서 기후보다 더 무엇이 중한디!

탈핵 기후위기
선언만 난무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그만!

청년토크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사)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고양	031.919.4040	(사)서울	02.3705.6000	(사)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양	061.762.0012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사)광주	062.609.1300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사)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사)순천	061.744.7990	(사)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사)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사)대구	053.652.0070	(사)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사)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사)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사)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사)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
100주년을 향해 걸어갑니다”

1922 ····· 2021
Go Back, go 100
정의와 평화, 생명을 향해
대학YWCA · Y-teen · 여성
YWCA 여성과 소녀들, 일어나다!
전쟁 속 피어난 여성들의 돌봄 이야기
농촌 계몽운동을 통한 독립과 해방을 꿈꾸다

조선헌여자기독교청년회
National YWCA of Korea

창립 99주년 YWCA 탈핵기후생명선언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하나님의 지구에서 자행된 인간 중심의 탐욕과 무한경쟁의 결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자 질서이고,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생의 자리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의 논리는 여성과 미래세대, 사회 경제적 약자,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고, 기후 불평등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 정의를 실현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여성

기후 변화를 멈추는
변혁의 주체입니다.

청소년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지역회원들

우리 지역을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과
자립 가능한 지역으로 바꿉니다.

한국YWCA 창립 99주년을 맞는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100년을 이어 지속적인 우리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탈핵기후생명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탄소 금식 행동을 실천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탈석탄·녹색금융을 지지합니다.

하나,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행동에 함께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한국YWCA연합회

2021. 11.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가 설립된 지 99주년인 2021년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 100주년을 향해 걸어갑니다”

2022년 1·2월 주요일정

1월 3일	사무식
1월 6일	YWCA 신년예배 사무총장 취임식
1월 7일	Y-틴 전국협의회
1월 11일	제2차 선거대응 워크숍 탈핵기후 정책의제
1월 15일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회
1월 26일	민법개정토론회
2월 16~17일	신임회장 교육
2월 17일	연합회 정기총회·후원회 정기총회
2월 23일	법인이사교육

제57권 제5호 통권 575호

2021년 12월 29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 김은주 최수선나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 04 **이달의 생각** YWCA 백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 원영희
- 05 **말씀 묵상** 버리고 비우며 나아진 성탄이야기 | 강교자

기획 한국YWCA 100주년, Go 100 Beyond 100

- 06 한국YWCA역사전시관, 채플실 개관
- 08 한국YWCA 100주년 너머를 이야기하다 | 100주년 자문단

- 10 **기후위기와 여성** 대선에서 기후보다 더 무엇이 중한디! | 이윤숙
- 12 **탈핵 기후위기** 선언만 난무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그만! | 이현석
- 14 **청년토크**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 | 대학·청년Y
- 16 **성평등** 평등으로 가는 길 Road to Equality | 이한빛
- 19 **로컬프렌들리 이야기4** 군산살이 3년차,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김수진
- 22 **평화**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 최수선나
- 24 **YWCA변화와 혁신5**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의 개념과 유의사항 | 김일석

- 26 **이달의 현장①**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28 **이달의 현장②** YWCA 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 30 **이달의 현장③** 제2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 32 **이달의 현장④** 세계 여성폭력 추방 검은 목요일
- 34 **이달의 현장⑤** 사람책방: 김초엽 작가와 떠나는 무한한 세계로의 여행
- 36 **이달의 현장⑥** 제25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 39 **회원YWCA 릴레이 순례기도회**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해 함께 걷는 기도순례 | 구정혜
- 42 **2022 제20대 대선 정책 의제**
- 46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2021년의 문화, 절망과 희망 | 김선영
- 48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COP자체가 문제임을 드러낸 COP26, 또다시 기후정의를 외면하다
- 49 **탈핵대선연대 출범 선언문** 안전한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

- 50 **연합회 소식**
- 56 **연합회 모금 현황**
- 57 **회원YWCA 소식**
- 68 **2021년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YWCA 백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백년의 세월을 지켜온 한국YWCA. 시대마다 요구가 다르고 특히 여성들을 향한 무조건적, 폭력적 요구의 방식도 참으로 다양했다. 그런 험한 세월의 파도 속에 기독교여성시 민단체로서 정체성을 지켜온 YWCA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의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백년을 실천해온 '계속'성에 있지 않을까.

첫째,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히13:1)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지속 실천했다. 다양한 의견으로 마음이 갈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도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미움보다는 사랑하기 쪽으로 기울고 그 따스한 품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딤후4:16)하시는 명령대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가르쳐 '탈핵'도 하고 '탄핵' 운동에도 참여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멈춤 없이 거리로 나아갔고, 명동 가운데 길에 깃발을 들고 "미투"를 외치며 만나는 시민들을 향해 주저 없이 성평등을, 동일임금을 '계속' 외쳤다. 52개 지역 YWCA에서도 조금씩 생각의 차이는 있었으나 같은 목소리로 평등을 외쳤다.

셋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는 권면처럼, 우리 한국YWCA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며 '계속'감사했고 또 '계속' 기도했다. 목적문을 놓고 99년 동안 '계속'기도하고, 이제 목적문을 더 깊이 알아가며 회개하고, 이를 통해 YWCA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높

으신 뜻을 '계속'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를 엮어냈다. 그리고 이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08. 한국YWCA는 한국YWCA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 우리들은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아주 새로운 기도가 아니라 새로 깨달은 현실에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린다. 새로운 백년을 맞으며, 전국 52개 회원YWCA를 순례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다.

넷째,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행20:7) 맞다. 우리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떠나는 이의 말을 밤중까지 '계속' 듣기도 한다. 수많은 선배들이 귀한 가르침을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용기 있게 표현했고 우리들은 그 소중한 발자취를 따라 그 정의를 '계속'실천하며 99년에 이르렀다.

다섯째, 이제 우리 후배 청년들이 YWCA로 더 많이 달려와 정의 평화 생명의 행진을 함께 '계속' 걸어주길 기대한다. 2019년부터 시작한 구조개혁에 발맞춰, 회원YWCA들은 적극적으로 독립법인화에 참여하고 있으니 더욱 감사하다. 마스터리스로 새롭게 단장한 페이지 명동 건물에서 연합회는 첫 백년 역사의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백년을 열며 외친다.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그리고 '계속'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샬롬.

버리고 비우며 낮아진 성탄이야기



강교자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장

성탄이야기는 버리고 비우며 낮아진 사랑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조주를 떠나 죽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쏟으셔야 할 분노와 심판의 징벌을 버리고,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신 이야기입니다. 버리고 비우고 낮아진 성탄이야기의 뿌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으로,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선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가장 작은 갓난 아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꿈꾸던 결혼의 기쁨도, 그의 아이를 잉태하고픈 계획도, 정결하고 정숙한 처녀라는 칭찬과 인정받음도 모두 버렸습니다. 요셉에게 버림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과 두려움까지 감수해야 할 만큼 낮아졌습니다. 요셉은 꿈꾸며 기다렸던 행복한 결혼과 신혼의 꿈을 버렸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정결하며 순결하다고 믿었던 약혼녀를 신뢰하려고 몸부림치며,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인정받음과 함께 자기를 닮은 아들을 품에 안고 싶은 아버지의 망도 모두 버렸습니다. 하늘의 영광보좌 버리고 이 땅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냄새나는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누우셨습니다. 보잘 것 없던 짐승들의 마구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예수의 탄생처가 된 것은 짐승들도 저들의 처소와 밥그릇을 버리고 비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요, 은혜이며 오직 '비우고 버리고 낮아짐'으로만 가능해지는 구원역사의 비밀이며 하늘은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비우고, 버리며

낮아진 성탄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기예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든 하늘백성들, 100년 전 이 땅에 Y를 세우신 선배들의 이야기이며 이어져야 할 우리들 이야기, 곧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호적하려 밀려드는 인파에 즐거운 비명 지르며 분주해진 여관들, 북적대며 떠들썩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 분주하여 해산을 앞둔 절박한 여인에게 어떤 관심도, 배려도, 도움도 베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예수의 탄생을 놓친 가장 애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워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아기예수를 놓친 자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자신만으로 채워져서 자기 이익만을 위한 생각, 판단, 지식만을 고집하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역사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엄숙한 교훈을 받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을 비운 자를 통해서만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며 버려지는 만큼 예수께서 내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며 나를 예수로 채우시는 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100살 생일잔치를 준비하는 Y가 잘 치워지고 비워진 마구간과 구유 같아져서 절박한 출산을 위해 마리아가 누울 수 있는 마구간,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누우실 수 있는 구유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한 해를 살면서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나' 때문에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으로 얼굴 들 수 없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는 기도, "비우고 버리고 낮아지는 성탄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서울 명동길 73번지 한국YWCA 회관. 이제는 '페이지명동'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한 회관의 8층으로 올라가면 한국YWCA 역사전시관, 채플실이 자리하고 있다. 창립 100주년을 1년 앞둔 2021년 11월, 한국YWCA연합회는 지나온 100년의 이야기를 역사전시관을 통해 알리고, 정의·평화·생명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인 채플실을 열었다.

100년의 역사를 공간에 담다

한국YWCA회관 8층. 명동성당이 한 눈에 보이는 옥상을 지나쳐 몇 계단 올라가면 파란색의 팻말 '한국YWCA'가 눈에 띈다. 고개를 돌리면 한국YWCA 목적문과 역사전시관을 볼 수 있다. 2019년 4월부터 '이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한국YWCA 역사관이 회관 리모델링 후 '한국YWCA 역사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11월 다시 개관한 것이다.

과거 물탱크가 있던 자리, 7.5평의 작은 공간에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YWCA가 활동한 역사를 알리고, 시민들을 가까이서 만나고자 다양한 전시물과 유물들을 배치했다. 역사전시관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곳엔 한국YWCA 역사관 '이제'에서 전시했던 판넬을 그대로 옮겨왔다. YWCA 여성운동 역사를 20년 기준으로 나눈 연대기별 전시물로, 각 시대에 맞는 제목과 주요 사진, 활동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 역사전시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전시물을 통해 방문한 시민들이 YWCA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역사전시관 입구에서 왼편으로 돌면, 사람 키보다 큰 대한민국 전도가 전시되어 있다. 전국 52개 지역YWCA와 연

합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로, 분단 전 활발히 운영되던 평양, 안주, 선천, 원산, 함흥YWCA도 표기되어 눈길을 끈다. 바로 옆에는 한국YWCA 회관의 변천사가 사진과 글로 정리되어 있다. 1934년 서대문구의 작은 한옥에서 1946년 명동에 낡은 목조건물 두 채, 그리고 현재 새롭게 페이지명동으로 재탄생한 본 건물의 역사가 담겨있다.

전시관 한 칸에 위치한 통창은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혀 주고 있는데, 명동성당과 남산타워를 창 밖 구조물 사이로 볼 수 있다. 통창 앞에는 포토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자들이 찍은 기념사진을 바로 인쇄하여 간직하거나 창 아래 게시판에 붙일 수 있다.

넓은 창을 통해 내리쬐는 빛은 한국YWCA 100주년 주제와 기념 엠블럼이 전시된 벽면을 비추고 있다. 엠블럼 아래에는 YWCA의 창립회의록, 초기 <한국YWCA> 월간 소식지, 과거 창립 기념품과 기념우표, 직인 등의 유물을 전시하여 YWCA의 오랜 역사를 체감할 수 있다.

코너를 돌면 세 면의 벽으로 둘러싸여진 특별 전시 공간이 이어진다. 정면으로 보이는 책장에는 한국YWCA 반

백년사, 80년사를 비롯한 회원YWCA의 각종 기념 책자가 전시되어 있다. 마주보는 두 벽면에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기념한 '검은 목요일'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에서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고, 검은 목요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원YWCA에서 참여했던 캠페인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방문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기독교정체성을 공간에 담다

역사전시관을 벗어나 위층으로 올라가면 YWCA 채플실이 나온다. 전 퀸즈YWCA 홍인숙 총무,故 서희전 선생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본 공간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한국YWCA의 정체성이 담겨있다. 채플실 입구를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세 개의 창은 스테인드글라스 무늬의 시트지가 붙어있다. 연합회 이한빛 청년 활동가가 디자인한 이미지로, 한국YWCA가 이야기해온 가치와 활동이 담겨있다.

창틀을 감싸고 있는 조각보 이미지는 여성평화순례로부터 이어지는 평화, YWCA의 다양한 운동을 나타내는 '다채로움'을 상징한다. 첫 번째 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낮과 밤, 달과 별이 나타나있고, 창조의 7일과 온전함을 의미하는 일곱 개의 별이 등장한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평화의 비둘

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한국YWCA의 역동적인 운동성을 상징하는 파도가 물결치고, 그 위를 100주년 엠블럼이 방주가 되어 항해하고 있다. 두 번째 창에는 십자가 사이에 한복을 입은 두 여성이 마주보고 있다. 왼편에는 YWCA 창립 발기인 대회 참석자들의 모습에서 착안한 과거의 여성, 오른편에는 여성운동을 의미하는 보라색 촛불을 들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을 상징한다. 두 여성이 서 있는 땅에는 생명사랑 공동체운동을 의미하는 민들레가 활짝 피어있고, 상단에는 창립과 100주년 연도인 '1922', '2022'가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 창에서는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평화'를 적었다.

채플실은 이야기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 둘러앉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원목 가구를 배치했고, 예배 공간 가운데에는 십자가와 촛불을 두어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도록 했다. 벽면에 부착된 십자가 뒤에는 창문이 있어 햇살을 받으면 은은히 빛나도록 했다. 채플실은 연합회를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예배·기도 공간뿐만 아니라 회원YWCA와 소규모 기독 모임 등에게 무료로 대관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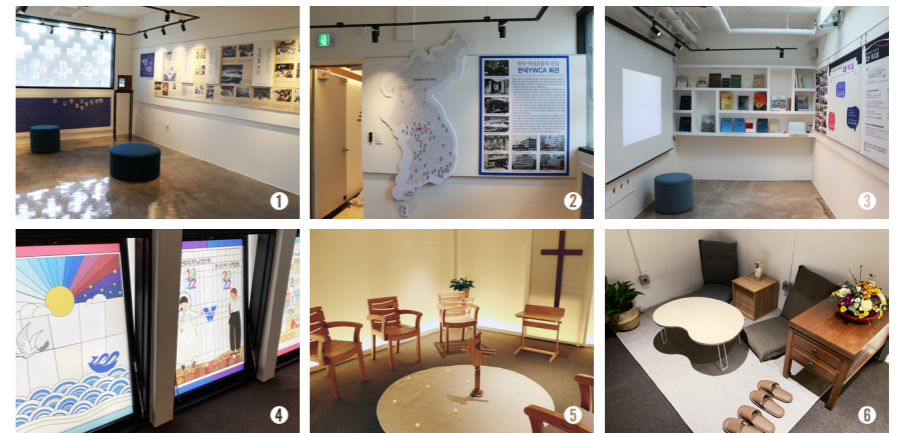
한국YWCA 역사전시관, 채플실을 통해 한국YWCA 역사와 가치가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전달되고,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100주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

역사전시관

- 1 통창과 역사 판넬이 있다. 중간에는 포토프린터가 놓여 있다.
- 2 한국YWCA 지도와 회관 변천사가 전시되어 있다.
- 3 한국YWCA 역사서와 검은 목요일 캠페인이 전시되고 있다.

채플실

- 1 한국YWCA 가치와 이야기를 담은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있다.
- 2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 3 마주앉아 이야기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한국YWCA 100년 너머를 이야기하다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 회원YWCA와 함께 만들어가는 100주년을 만들기 위해 고문단, 자문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국YWCA 100주년 자문단은 한국YWCA연합회 전 임원과 역대 사무총장, 증경회장모임의 역대 회장과 현 회장단, 해외·회원YWCA 전 사무총장, 고문 총무로 활동한 선배활동가, 주요 단체, 기관의 대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포함된 외부 위원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16일(화) 100주년 준비 자문단 모임이 연합회 W스페이스에서 열렸다. 김숙희, 원영희 100주년 준비위원장, 지역자문단 11명, 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 구정혜 차기사무총장 외 국장 3명, 100주년 실무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영희 공동위원장의 진행과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 모임에서 한국YWCA연합회 100주년의 경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YWCA 100주년 사업에 대한 제안, 100주년을 너머 한국YWCA가 나아가야 할 기대와 바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을 편집부에서 정리하여 보았다.

한국YWCA 100주년 기념행사는 회원YWCA 대표, 회원들은 물론, 타단체, 세계YWCA 등도 초청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YWCA 10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평양YWCA 건립 모금이나 남북통일 사업을 위한 사업기금 마련 등 평화통일을 위한 기금모금 사업을 진행하여 평화운동을 계속 연결해 나가면 좋겠다.

박정희 서울YWCA 증경회장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YWCA 100주년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회원들이 집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회원YWCA 또는 지역단위 YWCA가 모여서 100주년 행사를 시청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YWCA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

최현자 청주YWCA 증경회장

다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3.1 전국 만세운동처럼 100주년 기념행사때는 회원YWCA 현장을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국이 시간을 정해 함께 같은 구호를 외치며, 같이 티셔츠를 입고,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퍼포먼스를 해도 좋겠다.

김숙희 100주년 준비단 공동위원장

기념사업 중에 역사 포럼이 있고, 여성평화순례, 영화상영 등이 있는데 주제 키워드에 100주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지목이 되고 있다. YWCA는 어디까지나 여성들의 운동체인 것이 것이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므로 기념사업 가운데 여성운동으로서 YWCA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 여성사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 YWCA 주체적 운동의 방향의 내용이 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기념사업 중에 여성을 주제로 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최만자 전 연합회 임원

한국YWCA가 100주년 사업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좀 더 확장된 사업명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YWCA가 이제 지도력을 국내에서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 나라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임국이 대전YWCA 증경회장

한국YWCA 100년을 넘어 지속가능한 단체로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 지도력인 청년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YWCA의 100주년 사업과 구조변화에 이리한 기초가 담겨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또한 국내 유일하게 100년된 여성단체로서 대외적으로 한국YWCA가 알려지도록 여러방면으로 홍보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김태연 천안YWCA 증경회장

한국YWCA가 증점사업으로 '핵없는 세상 만들기'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주년 운동의 비전을 좀 더 논의하는 계기를 갖기를 바란다.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

법인화를 통해 기독교 약화, 회원운동성 약화를 염려하고 있다. YWCA 활동 안에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운동성을 배워왔는데 법인화를 통해 개체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100주년 이후에도 YWCA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기독교성을 반드시 살려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

청년 프로젝트 지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적합한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한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경제적, 사회적, 복합된 변화 속에서 우리보다 열악한 나라에 기금 마련하여 백신을 보낸다거나, 시대 변화와 결합된 기금 사업을 하면 좋겠다.

여성단체로 유일하게 100주년 맞이하는 한국YWCA가 어떻게 회원단체로 회원운동체로서 시민단체다운 일을 전개해나갈지를 연구하여 실천했으면 좋겠다. 재구조화 이후에도 위원회, 회원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경희 수원YWCA 증경회장

젊은 지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100주년 이후 젊은 지도자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이 많다. 결연이라든지 Y가족만들기라든지 청소년때부터 YWCA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지도자로 연결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박금자 강릉YWCA 증경회장

한국YWCA 운동을 생활밀착형 운동들로 많이 전개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와서는 탈핵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실천 내용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코로나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생활패턴들이 생기면서 생활 밀착형 운동성을 가진 여성, 청년들에게 적합한 실천운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탈핵운동도 건강한 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결국 기후위기운동과도 맞물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탈핵은 건강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함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유도희 여수YWCA 증경회장

대선에서 기후보다 더 무엇이 중한디!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기후위기와말로 대통령 선거의 핵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나라가 시끄럽다. 그런데 지금은 정작 대통령 후보들이 나라를 위해 어떤 정책과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사생활이나 당내 갈등 등이 더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는 씩씩한 상황이다.

기후위기가 전 인류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지만, 정작 그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대통령 후보들은 정말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가장 급한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구체적인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기후위기 문제야말로 대통령 선거의 핵심 정책 이슈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8월 시민단체 녹색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민 90% 이상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또한 88% 정도가 대통령을 뽑을 때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수가 기후위기 책임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에 대한 갈증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차기정부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들은 과연 이런 시민들의 뜨거운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 것일까.

성장주의로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대선후보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여러 가지 선거 이슈 중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민주당 경선은 기후위기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결과 기후위기 해결을 5대 핵심과제로 내건 조 바이든이 대

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9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은 '기후위기'였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외치며 100만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벌인 시위 덕분에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결과 캐나다는 현재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정부와 야당을 가지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치른 독일 총선은 정말 '기후총선'이라 부를 만큼 기후 이슈가 실업이나 코로나 이슈보다도 더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독일은 연립정권을 만들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내걸고 기후문제 해결에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가장 급진적인 정책을 내 건 녹색당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약진을 이루어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얼마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를 정의당도 '기후정의 선거대책위'를 발족시켰다. 뒤늦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던 '기후위기 선거'라는 전제계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내걸고 있는 제야당인 국민의 힘은 아직도 기후위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기후위기를 중요 이슈를 내걸고 선거 활동을 시작했지만, 과연 그 정책 공약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을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선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탈원전'이 아닌 '감(減)원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공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식의 정책적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내세우면서도 그 누구보다 '성장'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지역 균형 발전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등 5개의 신규 공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여전히 '성장'이라는 환상에 기후위기의 현실을 희생시키겠다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또한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게 없다. 그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기후위기 정책으로 원전의 재가동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들은 겉으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탄탄소'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이라는 유사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성장제일주의와 기업 우선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다. 이런 점들로 인해 청소년기후행동이 실시한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비전'을 설문 결과, 대선 후보 중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거의 낙제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대선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기후위기'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뛰어난 기후위



출처 <뉴스웨이>

기에 대한 엄청난 의지와 식견을 가진 정치인들 덕분에 아니다. 그들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하고 설득해서 커다란 전환의 물결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얼마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미진하고 모순적인 기후위기 정책들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핵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책임과 피해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둘째 시장과 기술 중심의 성장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정책, 셋째 사회경제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 넷째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다섯째 대다수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등이 그것이다.

정말 다시 지금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내세우는 정책들이 과연 기후위기 현실을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당신들은 과연 기후위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으며 기후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나고 말이다.

결국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시민들에게 있다. 이번 대선을 기후대선으로 만들게 하려면 우리는 전세계 많은 시민들이 그랬듯이 거리로 나와 외치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것이다.

선언만 난무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그만!

이현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지난 1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 글래스고에 전 세계 10만 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 맞춰 열린 '기후정의 국제행동의 날' 집회 때문이었다. 집회 당일 현장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기상 조건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기후정의'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같은 날 영국에서만 100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300여 곳 이상에서 같은 집회가 열렸다.

'기후정의 국제행동의 날' 집회 행사장 이외에도 글래스고 시내에는 '블라블라블라'라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우리나라 말로 '어찌고저찌고' 정도로 번역되는 이 말은 스웨덴의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해서 기후활동가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말이다. 각국 정상들이 너도나도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어찌고저찌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풍자한 표현이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야, 진보-보수할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기후위기를 말한다. 단순히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정도의 말은 이제 누구나 하는 세상이다. 심지어 화석연료를 판매하거나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조차 자신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그

린위성 - 친환경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선전만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 모든 것과 맞물려 있다

'기후정의'라는 말이 기후활동가 사이의 보편적인 주장이 된 것 역시 같은 이유이다. 거대 자본이나 기업에서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주요한 산업의 일부분이 되었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1/3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때도 마찬가지이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없애는 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한 전환과 같은 용어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선한 행동'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바로 깨질 수밖에 없다. 나의 선한 행동이 누군가의 일자리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가

기 위한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확장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실제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 모든 것들과 맞물려 있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 '기후정의 국제행동의 날'에 참석했던 이들을 보면, 주거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기후위기와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활동가, 제3세계 민중들의 인권과 생존권 운동을 하는 이들, 노동운동가, 사회주의자 정치 그룹 등 다양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만 집수리 - 그린 리모델링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열공사와 집수리는 저소득층에게는 그대로 집값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단계적 감축 VS 폐쇄

이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혹은 온실가스 상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들이 자국 내 온실가스를 줄이기 힘들어지자, 제3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준다면 진행되는 사업이 오히려 해당 국가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잃고 쫓겨난다거나 대규모 농장 개발을 통해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는 일이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기후위기'가 갖고 있는 이런 복잡함을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 동안 석탄, 석유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없는 세상, 탄소배출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한 일이 될 수는 없다. 더구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움직여온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전 세계 196개국 대표들이 모여 매년 2주씩 진행하는 기

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러한 대결과 논의가 이뤄지는 거대한 마당이다. 각국 정부의 대표는 대표들끼리, 시민사회 단체는 단체들끼리, 정당은 정당끼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끼리 '기후위기'를 주제로 토론하고 행사를 진행한다. 큰 집회가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한쪽 편에서는 합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번 26차 당사국 총회 역시 예정된 2주의 회의 기간이 다 끝났지만, 합의문 작성에 실패하여 회의를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phasing out) 할 것인지, 단계적 감축(phasing down)할 것인지 한 단어였다. 인도와 중국 등 석탄 사용이 많은 개발도상국은 '단계적 감축'을 주장했고, 이미 탈석탄을 많이 이룬 선진국들은 '폐쇄'를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약속한 기후기금을 충분히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당사국 총회는 결국 단계적 감축을 합의문에 담으며,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막연한 기후위기 대응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 제시 필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사적 배출 책임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과 선진국의 지원 약속, 두 가지 조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장면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전세계에서 홍수와 산불,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현장 상황은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와 거리가 멀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해결 방안이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혹시라도 숨겨진 다른 이해관계는 없는지 살펴보는 해안 또한 필요하다.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하는 시대, 조금은 불편하고 복잡하지만,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

| 대학·청년YWCA

2000년대 초 싸이월드, 미니홈피, 일촌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거다. 도토리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꾸민 나의 공간과 아바타로 소통하던 싸이월드는 전 국민들이 사용하는 국민 서비스였다. 2019년 문을 닫은 싸이월드가 2년만인 2021년 12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업고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 청년들 사이에서 요즘 이슈인 싸이월드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2021년 마지막 청년토크에 익명으로 신는다.

메타버스라고 들어봤어?

돌프: 메타버스 들어봤지. 가상현실 말하는 거 아니야?

산타: 가상현실은 맞긴한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일걸?

트리: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 많은 '제페토' 알아? 가상현실에서 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만들고, 여행도 간대. 초등학생 조카들 만나면 전부 제페토만 하고 있더라고.

셀매: 맞아. 나도 제페토 들어봤어. 네이버에서 만든 아바타 플랫폼인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바타를 꾸미고 돌아다닐 수 있어.

트리: 생김새랑 스타일, 말투 모든걸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자아나 부캐처럼 활동한다고 하더라고.

산타: 우와 나름 우리도 20대 초반인데 진짜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다.

셀매: 제페토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싸이월드랑 되게 비슷하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지?

트리: 맞아.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싸이월드랑 비슷한데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랑 함께 움직인다는 거야. 나의 아바타가 현실 세계에 있는 곳을 가고, 실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어.

제페토에서 명품도 살 수 있대

돌프: 명품을 산다고? 그냥 옷입히기 게임 같은 거 아니야?

트리: 단순히 옷입히기 게임이 아니라 실제 판매 하는 옷을 가상현실에서 입어보고 구매하는 거야. 실제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나의 아바타로 대리만족하는 거지.

돌프: 이해가 안돼. 실제로 입는 것도 아닌데 너무 돈 아깝다.

트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브랜드에서는 가상공간에서 홍보가 현실에서의 잠재 고객이 늘어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산타: 옷 뿐만 아니라 요즘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이 대세래.

셀매: 의류회사가 접목되는 건 기본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성형외과와 똑같이 생긴 건물에 들어가서 비대면 상담도 할 수 있대.

트리: '제페토 월드'라고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도 마케팅을 하더라고.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강 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을 만들었는데 오픈 첫 날부터 인기 폭발이었던. 편의점에서 한강라면도 끓여서 먹을 수 있어.

산타: 잘은 모르지만 연예계에서도 팬미팅이나 뮤직비디오 독점 공개들을 메타버스랑 접목하더라고. 에스파라는 그룹도 ae라는 가상 캐릭터들과 한 팀을 이룬다는 컨셉으로 데뷔했잖아.

돌프: 맞아. 블랙핑크도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3D 아바타가 신곡 발표하면서 팬사인회도 했었어.

이제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어

트리: 네이버에서 이번에 신입사원 연수도 제페토로 한 거 알아? 네이버 사옥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진도 찍



고 게임도 했다더라고.

산타: 우와 게임을 넘어서서 실생활에서도 가상현실이 활용된다는 게 쇼킹하다.

셀매: 메타버스는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 같아. 생각해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영역이지만 코로나19라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 같아.

돌프: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는 축제에 제페토를 이용했었어. 우리 지역 관광 명소를 가상현실에 구현해 놓고 관광객들이 직접 오는 대신 아바타를 만들어서 구경할 수 있게 했어.

산타: 오! 아이디어 좋다. 요즘 지역 축제들 보면 대면 행사를 못하니까 거의 유튜브 라이브로 대신하는데 그건 별로 지역 축제 같은 느낌이 없었거든. 가상현실이라도 내가 가고 싶은대로 움직이면서 구경할 수 있으니 여행하는 기분이고 좋겠다.

돌프: 실제로 못가서 아쉽긴 하겠지만 메타버스로 전세계가 구현되면 내가 예전에 가봤던 지역이나 나라를 가상현실로 여행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메타버스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산타: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녀를 낳으면 제발 가상현실 친구 말고 실제 친구 좀 만나라고 잔소리할 것 같아.

셀매: 진짜로. 너무 신박하고 재미있는 세계지만 가상현실이 커지면 키질수록 점점 세상과 단절될 것 같아.

돌프: 사회부적응자들이 많아지는 요즘 시대에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너무 과몰입할 것 같은 걱정도 생긴다.

트리: 시대에 발맞춰서 메타버스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자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산타: 아까 제페토는 10대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한다고 했잖아. 아직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애들이 하기에 조금은 위험할 수 있을거란 걱정이 드네.

셀매: 맞아.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전자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게 조절하면서 자아를 충분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한대.

트리: 우리 모두 메타버스를 잘 다스리면서 이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해. 현실세계에서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산타: 뜬금없지만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페이지 명동에 실제로 가본 적이 없잖아. 페이지 명동 월드를 구현해서 거기서 만나면서 총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면 재밌겠다.

셀매: 재밌겠네!!! 내년엔 제대로 건의해서 한 번 해보자! 🙏

성평등 토론회 기반으로 한국YWCA 2022 대선 정책의제 만들어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2021년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

한국YWCA 연합회 성평등 운동팀에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성평등 월간 토론회를 진행했다. 성평등 월간 토론회는 성평등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연합회 및 회원YWCA의 이사, 실무활동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시작하였으며, 총 6회를 진행하였다.

성평등 토론회는 한국YWCA 성평등 대선 의제를 작성하고 지선 의제와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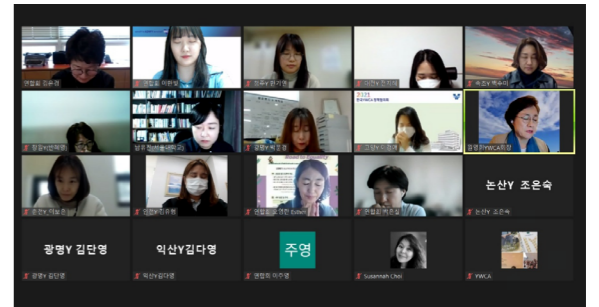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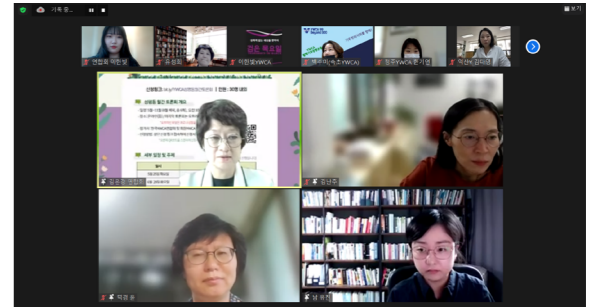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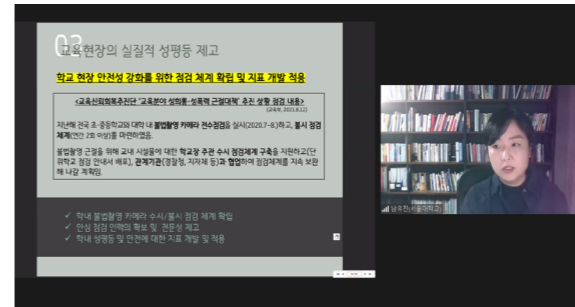
원YWCA 활동가 및 발제자/지정토론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활동가들은 함께 YWCA의 성평등 대선 정책의제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작성된 대선 정책의제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YWCA 성평등 대선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올해 성평등 운동에서는 대선 정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첫째 회원YWCA 활동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이 만들어지는 것과 둘째 달성 목표가 분명한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구조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회원YWCA 활동가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場)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작성해줄 수 있는 전문가 모임이었다. 각각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 월간 성평등 토론회와 성평등 대선 정책 TF 위원회이다.

그래서 월간 성평등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중요했지만, 더 많은 시간을 활동가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직접 나누는 것에 집중했다. 첫 달에는 당황스럽기만 하던 그룹 토론회가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두 번째 토론회 후에는 토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있었다. 매달 토론회 후에 진행되었던 피드백에 따라 프로그램은 유동적으로 운영되었고, 활동가들의 의견 취합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되었다.

성평등 월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모두 성평등 대선 정책 TF 위원회로 전달되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자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평등 대선 정책 제안을 구성했다. 여기에 한국YWCA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여러 운동과 가치, 방향성을 고려한 정책제안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YWCA의 성평등 대선 정책이 구성되었다.

5-7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

5-7월 성평등 토론회는 구체적인 이슈나 내용에 대해 강의나 발제를 먼저 듣고 이어서 토론이 이어졌다. 5월에는 'Covid-19와 여성 이슈', 6월에는 '기후위기와 젠더', 7월에는 '젠더와 대선 정책의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5월에는 제6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가자들이 세계 성평등 이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특히 한국YWCA 성평등운동과 적용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6월에는 '젠더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강의를 듣고, 이를 주제로 그룹별 토론과 전체 나눔이 이어졌다. 지속가능발전(SDGs)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는 얼마나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7월 토론회에서는 '젠더와 대선 정책의제'를 주제로 보다 더 심도 있는 대선 의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YWCA에서 하고 있는 일, 요즘 관심있는 이슈, 한국YWCA가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 등에 대해 나누었고 이를 통해 각 회원YWCA의 환경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공유를 통해 함께 정책 의제 제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9-10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

상반기 성평등 토론회는 회원YWCA의 참여를 통해 YWCA의 성평등 의제를 모으는 시간이었다면, 하반기 성평등 토론회에서는 한국YWCA 성평등 대선 의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대선 의제가 어떻게 지선 의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루려고 하였다. 또한 정책 제안(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 활동가들의 의견이 반영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쳤다.

하반기 성평등 토론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 진행되

군산살이 3년차,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주)로컬프렌들리 대표

YWCA청년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로컬프렌들리는 초기교회공동체 교제(행2:46)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로컬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회사로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현재 군산 구(舊)도심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획한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군산으로 떠난 YWCA청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번호에 실는다.



었으며, 11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는 '선거 대응 활동 논의 워크숍'과 병행하여 회원YWCA 대선 및 지선 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9-10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는 '성평등 대선 정책 의제'를 주제로 성평등 대선 정책 TF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경제, 젠더폭력, 교육,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의 각 영역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의 배경부터, 어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였고, 활동가들의 질문과 추가 의견이 공유되었다.

11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 선거 대응 활동 논의 워크숍

11월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대면/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전체적인 대선 정책 및 2022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유되었고, 안양 YWCA 이규숙 국장의 발제로 유권자 운동 사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이후 연합회 성평등운동 책임위원인 김은경 위원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열정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논의 내용을 전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 기존 유권자 운동을 참고하여 한국YWCA 정책의제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20대 대선 유권자 방향과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둘째 대선정책의제와 지선정책의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였다.

먼저 20대 대선 유권자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여성들의 연대 구축, 여성단체들이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성평등 의제 피력,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퍼포먼스나 성명서 진행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국 YWCA가 함께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책의제 제안 내용에 관한 짧은 영상이나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를 활용하는 것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지선과의 연결에 대해서는, YWCA 대선 의제 중 각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조례에 반영 가능한 것으로) 정책 선별, 여러 의제를 다 다루기보다 몇 개의 의제에 대해 집중 대응, 각 대상에 맞는 정책을 구성 및 전달, 여성단체들과 연대 및 공동 대응, 선거 이후 모니터링 진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어느덧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50여 일을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YWCA연합회의 대선 정책제안은 각 후보자 캠프로 전달되었다. 2021년 한 해 열심히 준비해온 한국YWCA 대선정책 제안이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반영되어 성평등한 사회로 조금 더 다가가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란다. 🍀

비하인드 스토리. 낮설지만 낮설지 않은 이야기

군산살이 3년이 꽉 채워져 간다. 5·6월호부터 3번의 연재로 소개된 이야기 외에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사건 사고가 참 많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움직이게 만들었고, 때론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기도 했다.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는 법. 웃고 울었던 군산살이 3년차, 로컬프렌들리의 낮설지만 낮설지 않은 이야기를 가볍게 전해본다.

첫번째 이야기. 여성대표 특혜시비¹⁾

슬프게도 낮설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바로 젠더갈등! 대한민국 경상도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 '딸'로 태어나 살면서 어느 정도 내공도 쌓였고, 단단해져 간다고 스스로 자부했다. 전에는 눈에 십지를 켜고 달려들었을 상황들을 웃으며 차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런데 창업을 하며 마주하는 상황들은 오락에서 새로운 '보스몬스터'를 만난 것과 같았다, 그래도 '아마 지역이라 더 심한 걸 꺼야'라는 마인드 컨트롤과 함께 창업과 타지생활 생존에 집중하며 잠시 감각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임계점에 다다른 것일까, 평소처럼 지나치기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다. "나도 여자였으면 좋겠다. 대표님은 여자라 참 좋겠네요.

이거 불공평한 특혜 아닌가요?"

자본을 충분히 마련하고 창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창업가는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된다.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여러 절차를 통과하면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기업'이 되면 금리우대, 보증료우대 등 다른 기업 인증 제도와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장 큰 혜택이라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계약)' 시 허용범위 2천만 원을 넘어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바로 이 혜택 때문에 '여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여자만 특혜를 준다는 그 물음에 여자인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길 바라는 것인지 반문이 들었다.

언젠가 뉴스에서 한국 상장기업 중 여성CEO를 포함한 여성임원 비율이 한 자릿수 비율이라는 것을 봤다. 전문적인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청년 창업가 모임이나 우수사례 공유 등의 자리에 참석해 보면, 대부분 남성CEO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도 서울에서 열리는 창업가 컨퍼런스는 운영진이 의도적으로 남녀성비를 맞춰서 연사를 초청하려 하지만, 지역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지금까지 다녔던 지원사업 면접장에 여성 심사

1) 군산 페미니즘 문화행사기획팀 우만컴퍼니가 발간한 <우만플러그, 군산>에도 수록되어 있다.

위원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여성창업가를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도 많다. 요즘엔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는 시선은 덜하긴 하지만, 여성은 리더십이 없고 체력이 좋지 않다든지, 기술적인 전문성이 떨어지고 성과 달성이 빠르지 않다는 등의 편견들이 많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지역에서 창업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네트워킹의 장에서도 사업에 관한 질문을 받는 다기보다, 여성대표가 있어서 좋다는 등의 인사가 선행된다. 뭐 분명 기분 좋아지라고 해준 말이었겠지만, 난 그런 식의 기쁨조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다.

여성창업가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고, 혜택을 무한정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바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회복되어, 창업 혹은 기업이 영역에서 이런 혜택 없이도 여성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환경을 여성기업 인증으로 오는 혜택보다도 더 간절히 원한다. 여전히 여자답게 살기 어렵고, 여자이기에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자만’이라는 특혜시비가 안주처럼 매번 술상에 올라간다. 창업 자체도 힘든데, 이 기울어진 창업운동장에서 여자 기업인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 많다.

두번째 이야기.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사이

누군가 ‘창업 복음주의’라 칭할 정도로 창업 범람의 시대를 살아간다.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안처럼 주목되어 왔다.²⁾ 더불어 현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어 기업의 이윤활동 외에 사회적 가치 실현 또한 중요해졌다. 이는 곧바로 청년창업 생태계에 영향을 끼쳤는데 기본적인 예시로 청년창업지원사업 대



로컬프렌들리는 (당시 Y-LAB) 2019년 소셜벤처경연대회 광주전라제주권역 본선심사에서 3등으로 입상하여, 소셜벤처경연전국대회에 진출했다.

부분의 심사 항목 중 적합성, 혁신성, 이행 노력 및 지속가능성 외에도 지역문제 해결능력과 같은 공익·공동체성에 배점된 점수도 꽤 높다.³⁾

사실 로컬프렌들리는 다른 청년창업가의 출발과는 조금 달랐다. YWCA청년들로 구성된 우리는 YWCA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시민단체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창업한 사례다. 계속해서 ‘YWCA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둘다 중요하다. 가치적 측면에서 만점을 받아도 수익을 제지 못한다면 팍이다. 반대로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결코 우리의 방향이 아니었다.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가 있다. 이 둘은 비



로컬프렌들리가 있기까지 함께 한 YWCA청년들이다. (함께한 시간 순서대로) 차민규, 김광식, 김수진, 손지수, 서형원. 현재는 손지수와 김수진이 남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견센터에서 입양한 ‘땡이’와 함께 군산에 살고 있다.

슷해보여도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두 개가 상충할 때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즉,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형태로 생산하는 조직이다.⁴⁾ 반면 소셜벤처는 기업의 형태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생산하는 조직으로, 영리기업도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고, 재무적 가치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로컬프렌들리는 어떤 형태를 갖춰야할까? 결론만 먼저 꺼내보자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그 사이 어딘가’이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만 얽매어 사업의 본질이 흔들린다면, 상품의 경쟁력 없이 단순한 스토리 장사만으로 실질 수익발생이 어렵다면 결국 지속가능성이 없다. 한편,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이윤추구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가치를 수단으로 여긴다면,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진다. 항상 중간이 어렵다. 하지만 로컬프렌들리는 엄격한 잣대를



최근 모과섬터 축제부터 시민문화회관 행사까지 함께 한 개복동 어벤저스 (왼쪽부터) 로컬프렌들리 손지수, 부영이스튜디오 임희성, 낙타공방 임태웅, 꽃일다 청년공예협동조합 박미선, 로컬프렌들리 김수진

들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지지 않도록,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외에 제3의 영역인 그 사이를 공략해야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우리는 YWCA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화시키고, 지속가능한 YWCA청년모델 개발과 지역내 청년일자리 창출의 한 모범이 되고자 직접 창업에 도전했다. YWCA를 떠나, 창업이라는 새로운 영역 안에 있지만, 오히려 이 곳에서 YWCA를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체득되어 있는 YWCA 가치를 나침반 삼아 기존의 시민단체도 아닌, 사회적기업도 소셜벤처도 아닌 새로운 길을 군산에서 개척하고 있다. 반대로 100년이 된 YWCA 조직의 경직과 관습을 풀어낼 지혜를 군산에서 얻기도 한다. 사실 글로 담지 못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담아낼 이야기도 더 많아질 예정이다. 2021년은 끝이 났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로컬프렌들리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2) 청년창업이 과연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직접 느낀 바가 많다. 특히 지역문제해결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따라다니는데, ‘청년창업’, ‘청년일자리문제’, ‘지방소멸문제’ 이 세 가지를 함께 면밀히 다루는 것은 다음에 기회에.

3) 지원사업 외에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업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창업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행사도 있다.

4)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 루비콘 베이커리, 릭 오브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여성평화운동을 위해

최수산나

(사)한국YWCA연합회 국장

2021년 11월 2일 국내 여성평화단체들은 민간 첫 남북 교류였던 남북일 여성들의 1991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기념하고자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11개 개별단체 및 연대체들이 공동주최하고, GPPAC, WILPF, WCDMZ, 여성신문, 통일뉴스가 후원하였다. 주제는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이었으며, 현장과 온라인 줌으로 30여 명, 실시간 유튜브로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1991년 시작된 남북여성교류

1991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한국여성들의 제안과 일본 여성들의 협력으로 1차 도쿄 및 고베(1991. 5. 31-6.2), 2차 서울(1991.11.25-30), 3차 평양(1992.9.1-6), 4차 도쿄(1993.4.24-30)에서 진행되었다. 주역은 남측의 이우정(신민당 수석최고위원), 이효재(여연 회장), 윤정옥(정대협 공동대표), 북측의 려연구(최고민인회의 부회장), 정명순(통일문제연구소 참사), 리연화(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지도원), 일본측의 도이 다카코(사회당 당수), 오타카 요시코(자민당 참의원), 미키 무츠코(미키다케오 전 총리부인), 시미스 스미코(참의원) 등이었다. 여기에 일본YWCA의 협력과 와타나베 일본YWCA 이사의 2차 서울 토론회 발제, 그리고 3차 평양 토론회의 조아라 전 광주YWCA 회장의 참여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여성 관점의 일제 식민지배 청산과 배상, 일본군‘위안부’, 한반도의 통일, 동아시아 군축, 가부장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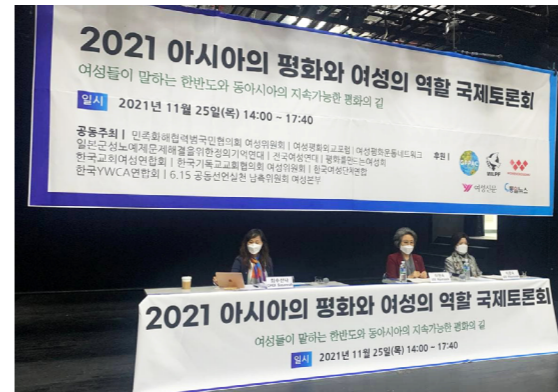
군사주의 등을 통한 아시아의 평화를 논의하였으며, 통일까지 지속을 계획하였으나 1993년 북핵 위기 발발과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 성과와 과제

2021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부는 필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1991년 토론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와 네 명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는 30년 전 토론회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탈냉전 흐름을 읽고 역사적 순간을 낚아채 국제 토론회를 이끌어낸 것, 여성외교 결실을 맺은 것, 분단 이후 최초로 DMZ를 넘은 것, 아시아 평화 의제를 설정하고 평화 조건을 탐색한 것,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장을 연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동과제로 채택한 것, 남북일 화해의 계기를 연 것, 각 국가 내 여성평화의 협력과 연대의 기틀을 만든 것, 2천년 대까지 이어지는 남북여성교류의 디딤돌을 놓은 것 등이다. 또한 향후 과제로는 남북여성의 공동과제를 모색하고, 동북아 WPS(여성평화안보)여성네트워크 및 협력과 연대의 동북아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연대의 핵심 매개체가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유엔 및 각국 의회 결의안을 이끌어내며 국제 인권 레짐을 변화시켜왔음을 평가하였다. 이문숙 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



무는 아시아를 넘어 더 많은 여성들과 1325 WPS 의제를 확장할 것, 경계인 및 주변인들과 함께 하는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시이 마야코 전 일본YWCA회장은 2015년 한·일YWCA가 공동발의한 핵에너지 및 무기 거부 결의안을 소개하며 핵무기와 핵발전을 포기하고 군사력 증강을 중단할 것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의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사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패티 텔벗 캐나다연합교회(UCC) 국장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존중과 상호성 관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캐나다연합교회는 2001년과 2004년 남북여성회의를 토론회에서 개최했으며, 2019년 3차 모임을 계획했던 바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 적극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지속적 연대를 약속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2부는 김정수 평화여성회 대표의 사회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위협 요인,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평화 위협 상황의 해결 방향과 여성들의 협력 제안 등이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 행위들, 군사중심 문화에서 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서술하며 군축 및 종전 선언의 중요성과 유엔안보리1325 결의 실행을 강조하였다. 아키바야시 코스에 WILPF 교토 코디네



등을 제안했다. 앤 라이트 WCD 운영위원은 미 육군 대령이자 국무부 관리 출신이다. 미 군수 산업의 무기 판매 현실과 미군 병사들이 분쟁 정책에 이용되고 청년들과 여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통해, 여성이 경험하는 전쟁의 피해를 드러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과 여성들이 정치적 과정에 직접 참여 혹은 로비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 차하르 연구소 왕 다닝은 북한의 불참과 북측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며, 북한의 악마화를 해체하고 시민사회 플랫폼을 통해 국제사회가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와 연구를 통해 평화구축 과정에 남북여성 간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랩업 토론을 맡은 고유경 WILPF 컨설턴트는 동북아여성들의 WPS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연대를 강화하자는 공통 의견을 정리하였다.

30년 만에 재개된 토론회는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미국으로 참가국을 넓혔지만, 북측 참여는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얼음장 같던 남북관계를 깨고 막혀있던 길을 걸으며 새 역사의 장을 열었던 30년 전처럼, 아시아를 둘러싼 여성들의 이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와 경제 제재, 비핵화 논쟁의 남북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패티 텔벗이 강조한 것처럼, 예수는 평화를 위해 말하는 자가 아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다. 우리의 말들이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실질적 행동의 결과가 되기 위해 각 개인과 각 회원YWCA들이 작은 하나의 실천이라도 지역에서 이루어내기를 제안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의 개념과 유의사항



|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공익법인이란?

공익이란,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에게 이익 배분을 금지하며, 잔여재산 처분의 자율을 제한하고, 제한적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와 같다. 이러한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법률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모든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된다.

출연재산이란?

출연이란, 민법에 따른 재산행위이며, 재산행위는 출연과 비출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기 재산을 손실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타인의 재산의 증감 없이 자기 재산이 감소하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이 없는 것이다. 출연은 유상출연과 무상출연으로 구분되는데, 유상출연은 자기와 상대방이 대가적 관계로 상호 출연하는 것으로 매매·임대차 등이 해당하며, 무상출연은 대가 관계

가 없는 것으로 증여·사용대차가 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공익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재산이란 기부금 또는 증여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WCA와 같은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후원회원의 회비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일반회비(활동회원 회비)는 출연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비의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적용하는 출연재산이 달라진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 및 한국YWCA연합회후원회에서 회원YWCA 부동산과 예금을 후원하거나 기부(출연)하는 방식으로 이전되는 재산 역시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후관리의무

공익법인은 기부금 또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과거 이러한 세제혜택을 이용한 사익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가 도입되었다.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는 출연재산, 사익추구 금지, 납세협력의무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출연재산과 관련된 사후관리의무는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의무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 5%초과

금지 등이 있다. 둘째, 사익추구 금지는 출연자 등의 임직원 취임 제한 및 경비 지급 금지, 출연재산의 무상 및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 금지,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 일부에게만 혜택 금지 등이 있다. 셋째, 납세협력의무로는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장부작성·비치·의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 전용계좌개설·사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출연재산 중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정관에 재산 목록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매매·임대·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 제공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매매의 경우 현금으로 채권·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며,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현금을 정기예금에 투자하거나, 만기가 되어 다시 다른 정기예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을 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회원YWCA의 경우,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주무관청 또는 담당 공무원마다 그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이 금하고 있고,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원금보존의 책임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다.


유의사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먼저 세제혜택을 주고, 사후관리를 통해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부터 3년 이내 일정비율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의 경우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이상을 의무 지출하여야 하며, 1%를 미

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운용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운용소득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80%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을 통한 출연자의 사익추구 및 지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의 임원 취임을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직원으로써 인건비 또는 직·간접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출연자란, 2천만원 또는 총 출연재산가액의 1%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출연)한 자를 말한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한국YWCA연합회 또는 한국YWCA연합회후원회가 회원YWCA에 2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을 출연하였다면 한국YWCA연합회 또는 한국YWCA연합회후원회는 출연자가 된다. 또한, 회원YWCA가 재구조화 전에 개인 명의(대표자 명의)나 다른 법인 명의의 재산을 재구조화 이후 회원YWCA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장부작성·비치·의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는 대부분의 회원YWCA에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가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 20억원 이상인 회원YWCA는 반드시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출연재산 사후관리의무는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출연재산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받을 것을 건의 드린다. 아울러 한국YWCA에 맞는 공익법인 세무관련 직무교육에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변화와 공존의 리더십을 만나다

대상 서명숙, 젊은지도자상 김초엽, 특별상 김연경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와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11월 11일(목)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YWCA 강당에서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열어 서명숙(사)제주올레 이사장에게 대상, 김초엽 소설가에게 젊은지도자상을 각각 수여했다. 특별상에는 배구선수 김연경 선수에게 시상했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최초의 여성 편집장 자리를 내려놓고, 제주도 올레길을 개척하여 자연과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공헌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젊은지도자상은 과학의 전문 지식 영역과 SF 소설의 창작 영역을 결합하여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의 소수자와 차별 등 현실의 문제를 깊이 있게 조망한 김초엽 소설가가, 특별상은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활약과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도전정신과 뛰어난 리더

십을 발휘한 김연경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제주도 올레길 개척 지원 시민들의 삶에 위로와 힘 제공

대상을 수상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월간지 <마당> 및 <한국인> 등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1989년 시사저널 창간 멤버로 입사하여 대한민국 내 여성 정치부 기자 1세대이자 시사주간지시상 첫 여성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끝으로 23년에 걸친 언론인 생활을 마치고, 고향 제주도로 돌아가 2007년 9월에 제주올레를 발족하고 제주올레 이사장직을 맡아 활동하였다.

휴식과 치유를 위해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길을 통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처음 접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주 올레의 모든 코스를 계획할 때 반드시 제주 도내의 마을을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여 여행자들이 제주 지역 사회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올레가 지역 사회와 외국인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시상식에서 서명숙 이사장은 “어머니도 인정하지 않았던 미친 꿈을 이루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로 가는 길을 내주시고 바다로 가는 길을 내주신 분, 바다목장 같은 너무 아름다운 사유지를 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그 길에서 행복과 치유와 힐링을 경험한 분들을 만났고, 그 길에서 후원해 주시고 길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셨다. 자원봉사자들의 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14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과 치유를 낳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초엽 소설가, SF 장르 안에서 소수자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차별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인식 개선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김초엽 소설가는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에서 ‘관내분실’이 대상, 필명으로 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가작에 동시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관내분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순례자들’ 등의 소설은 ‘소외와 결핍’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대상 수상작 ‘관내분실’은 여성 화자를 통해 주인공 어머니의 경력 단절이라는 성차별 문제를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SF 소설 장르에서 신선함과 차별성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꼽힌다. 기술로 인한 세계의 변화, 그 안에서의 타자와 소수자 문제, 나아가 개인의 변화하는 감각을 아우르는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김초엽 소설가는 포스텍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사과정에서는 생화학 바이오센서를 연구하였다.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을 수상하고 작가로 데뷔하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10대 후반에 고주파 영역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3급 청각장애를 갖고 창작 활동에 힘써왔으며, 소설을 통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차별과 혐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삶을 이야

기하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초엽 소설가는 수상 소감에서 “작가들에게 주는 문학상이라는 것은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젊은지도자상은 제 작품이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문학상을 받는 것만큼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히며 “내가 생각하는 SF에는 다른 의미들이 있다. SF에 등장하는 로봇이나 외계인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SF는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열린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구가 SF라고 생각한다. 다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양성의 세계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 작가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따뜻한 소감을 밝혔다.

김연경 배구선수,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활약과 더불어

도전정신과 근성으로 국내외에서 뛰어난 여성리더십 발휘

특별상을 수상한 김연경 선수는 해외 경기로 직접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수상소감을 전했다. 동양인으로서 이례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 중에 있는 김연경 선수는 침체에 있던 한국 여자 배구를 다시 인기 스포츠로 일어서게 한 장본인이며, 2012년부터 올해 진행된 도쿄올림픽까지 총 세 번의 올림픽에서 두 번의 4강 신화를 이끌어 내며 2021년 코로나 블루 속에서 국민에게 기쁨을 안겼다.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와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여성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여성지도자에게 대상, 미래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만 50세 이하 여성에게 젊은지도자상을, 문화다양성과 평화,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여성 혹은 단체에게 특별상을 수여해왔다.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

세계YWCA-세계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세계YWCA와 세계YMCA는 세계 에큐메니칼 기독교 청년 단체로, 단체의 운동 방향성 공유를 위해 매년 11월 중 공동 기도주간을 정하고 공통의 주제와 내용으로 기도하며 연합예배를 드렸다. 함께하는 기도주간은 194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전통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도 함께 기도자료를 번역하고 각 지역 단체에 배포하며 기도주간 중 하루를 정하여 연합예배를 드려왔다.

2021년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2021년에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이 진행되었다. 이번 기도주간은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Beauty from Brokenness)'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깨어진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해에는 한국YMCA전국연맹이 자료를 번역하였고, 한국YWCA연합회에서 번역 검수 및 포스터/줌 배경 화면 제작을 진행하였다.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은 각 요일별로 소주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의 아름다움',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움', '존엄성과 소속됨의 아름다움', '용서의 아름다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의 아름다움', '새로워짐의 아름다움',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에 따라 여러 공동체가 경험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 목상이 소개되었다. 현재 눈앞에 놓인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위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고, YWCA/YMCA 공동체의 소중함과 회복, 또 앞으로 우리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YWCA YMCA 연합예배

11월 10일 서울YWCA 주관으로 진행된 2021년 연합예배에는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의 100여명의 이사 및 실무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였다. 함께 모여 우리 안의 갈라짐과 깨짐을 고백하고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 질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을 목상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변을 환히 비추는 운동체가 되기를 함께 간구했다.

예배 후에는 각 단체 참석자 및 소식 나눔의 시간을 통해 친교를 나누었다. 각 단체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대면으로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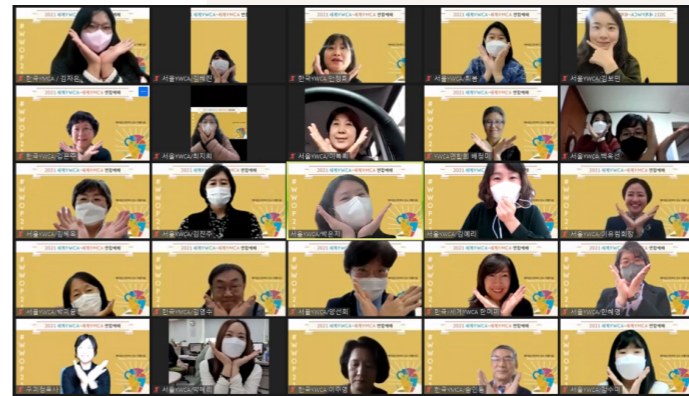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

- 일시 : 2021. 11. 10(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줌 예배실
- 주관 :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 서울YWCA



지 못한 아쉬움을 나눴다.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띠를 잇는 사진을 찍으며, 우리는 떨어져있지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자 했다.

전 세계에서 또 지역에서도 YWCA와 YMCA가 연대하여 예배를 진행하였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는 에큐메니칼 청년 운동체로서 내년에도 연대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성경읽기 계획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성경읽기가 진행된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 세계의 YWCA 및 YMCA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경 목상을 통해 공통의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열려

| 홍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조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 2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 대회가 10월 30일(토)에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경제, 성평등, 청소년 활동, 평화, 환경 등 5개 영역으로 YWCA의 중점 운동과 경제의 관점을 접목한 주제로 공모하였으며, 서류 심사과 오리엔테이션, 중간 보고회를 거쳐 9팀, 총 3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약 두 달여의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조별로 계획서 작성, 예산 계획, 프로젝트 참여 등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각 분야별 전문 멘토들의 맞춤형 멘토링을 받으며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해왔다. 특별히 올해 대회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익숙해진 온라인 환경 속에서 프로젝트 참여도를 제고하고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게더타운이라는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대회는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환영사와 한국씨티은행 영검식 본부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인 코끼리 협동조합 김보람 대표의 '나의 세상을 꿈꾸기 위해 만드는 든든한 사회 도전담'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이 진행되었다. 김보람 대표는 "청소년 시기는 많은 도전과 부딪힘의 연속의 시간이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연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멋진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제 강연 이후 본 대회와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최종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팀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구독 서비스 개발'에 관한 주제로 발표한 wegomango팀이, 우수상에는 '폴로깅 챗봇지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망월천지킴이팀과 '암호화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암호화폐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피해 극복'에 관한 주제로 발표한 YSN팀이 수상하였다. 또한, 장려상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YNWA(You Never Walk alone)이 수상하였다.

정승애(사인인팩트) 심사위원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사회의 문제를 공감하고 청소년만의 방식으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에 옮긴 것은 용기 있고 멋진 일이다"라며 "사회에 유익한 부메랑을 만드는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꿈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류심사와 중간보고회 과정을 거친 총 9개의 참가팀 중 'wegomango' 팀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금융게임, 금융서비스) 구독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지원하였다. 한국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비해, 금융 이해력 지수가 낮다는 문제점과 다문화 가정의 적절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에서 착안하여 금융교육서비스를 개발하여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적절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게더타운에서 열린 제2회 청만세 입장 전 모습과 단상. 각 팀의 모습이 보인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YNWA(You never walk alone)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오스크 교육을 주제로 삼았다. 지역 내의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과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노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비전을 담아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YNWA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하며, 노인들도 키오스크에 친숙해지는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

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슈를 발굴하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해결 방법을 찾아내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들은 사회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람들의 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저항하며 목요일에 입는 검은 옷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11월 25일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UN Women에서는 12월 10일까지 젠더폭력에 저항하는 16일 간의 운동(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based violence)을 전개하였다.

1981년부터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11월 25일을 젠더 폭력에 저항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1960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통치자 라파엘 트루히요(1930-1961)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세 명의 정치 활동가인 미라발 자매들을 기리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유엔은 2000년 2월 7일 결의안 54/134를 채택하며 공식적으로 11월 25일을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 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국제 기구, NGO 단체들이 함께 동참하였다.

유엔은 2008년부터 전 세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16일 간의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며,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요구하는 여러 행사들이 진행된다. 올해 16일간의 운동 주제는 '세계를 주황색으로 물들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금 끝내라!(Orange the World: End Violence against Women Now!)'였다.

세계 여성폭력의 실태 (*UN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 자료)

전 세계의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학대를 당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최근의 위기, 분쟁, 기후 재해의 여러 사례를 보면, 위기의 시기에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의 숫자는 증가한

다. 코로나 이후 13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엔 여성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2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경험했으며 식량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젠더 폭력이 만연하더라도, 우리는 젠더폭력을 멈출 수 있다. 젠더폭력은 예방될 수 있고 예방되어야만 한다. 젠더폭력을 멈추는 것은 폭력의 생존자들을 신뢰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해가 되는 사회 규범을 변화시키며, 여성과 소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치안, 사법, 보건, 사회 여러 부문에 걸친 생존자 중심의 필수 서비스와 여성 인권 의제를 위한 충분한 자금 지원으로 우리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끝낼 수 있다.

검은 목요일 캠페인

한국YWCA는 작년부터 검은 목요일 캠페인에 동참해왔다. 검은 목요일 캠페인은 성폭력과 젠더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에서 시작하였으며 세계YWCA를 포함한 여러 에큐메니칼 단체 및 기관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 검은 목요일 캠페인은 매주 목요일마다 검은 옷을 입음으로써, 또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한국YWCA는 올해 11월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장을 맞이하여 검은 목요일 캠페인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하였다.

먼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고, 연합회 7층 역사관에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캠페



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원YWCA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캠페인 활동을 전시하였다. 또한 캠페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배경도 함께 게시하였다. 번역한 캠페인 자료와 디자인 자료는 회원YWCA에 공유하여, 캠페인 활동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원YWCA는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에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였으며, 여성 폭력추방 주간에 맞춰 자체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지역에서의 여성폭력 추방 운동

포항YWCA는 '폭력없는 행복한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가정폭력 예방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포항YWCA는 변화 되는 사회 속에서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의 중요성, 즉 폭력 없는 가정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밑거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포항 시민과 함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포항시 죽도시장 일대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소개하고, 가정폭력예방 젠더감수성 OX 퀴즈, 홍보물품 전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친근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에 처했을 때 다양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YWCA에서도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

행하였다.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반대합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에 반대합니다'가 적혀있는 피켓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폭력에 저항하는 YWCA의 정신을 보이고, 여성폭력 추방 주간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해 여성 폭력 철폐를 위해 광범위한 공공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남양주YWCA도 피켓팅 사진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 게시함으로써 회원 및 시민들에게 여성 폭력 반대의 외침과 여성대상 폭력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목요일에는 검은 옷을 입어요

젠더폭력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공공연하게, 때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젠더폭력은 사회와 공동체 사이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젠더폭력에 대한 저항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검은 목요일 캠페인은 목요일에 검은 옷을 입음으로써 폭력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폭력에 저항하는 우리의 연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목요일에 검은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저항의 다짐을 매주 새롭게 해나갈 수 있다. 목요일에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은 서로를 마주하자. 따뜻한 연대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 검은 옷을 입은 우리가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지켜내는 보호막이 되고, 더 나아가 젠더폭력의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초엽 작가와 떠나는 무한한 세계로의 여행

| 정서연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

한국YWCA연합회는 12월 16일(화) 저녁 7시부터 유튜브로 <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첫 번째 사람책방: 김초엽 작가 편을 진행했다. 김예지, 서다미 대학청년Y 회원들의 진행으로 김초엽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YWCA 100주년 핵심 키워드 '청년'

2022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을 기반으로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청년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의 핵심 키워드다. 순수하고 도전적인 청년들로 시작된 YWCA 운동에서 청년은 그 자체로 주인공이며 주체이기 때문이다. 한국YWCA는 YWCA 운동의 출발점인 청년들과 함께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기 위해 YWCA 100주년 기념사업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사람책방'을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책방의 주인공으로 지난 11월 개최한 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수상자인 김초엽 작가를 초청했다.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어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리더십에 시상하는 젊은지도자상 수상자 김초엽 작가는 문학작품을 통해 혐오와 수많은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사회를 한층 더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십으로 인정받았다.

첫 번째 사람책방:

젊은지도자상 수상자 김초엽 작가와의 만남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김초엽 작가는 청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또 서로 간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김예지, 서다미 대학청년Y 회원은 <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첫 번째 사람책방 김초엽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내가 꿈꾸은 세계: 꿈, 어린시절', '내가 경험한 세계: 꿈과 현실, 작품으로의 연결', '내가 꿈꾸갈 세계, 더 위대한 세계로: 자아, 타자, 사랑, 이해, 위로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으로 파트를 나누어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가고 싶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대담형식으로 풀어갔다.

지금의 작가를 만든 김초엽 님의 어린시절은 어땠을까? "저는 어릴 때 꿈이 거창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세계를 바꿀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 현실이 아닌 세계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소설이 진짜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 과학에 빠졌는데, 이 세계에는 어둡고 불합리한 구조들이 많은 것에 반해 논리정연하고 질서가 있는 과학을 통해 뭔가 자연의 비밀을 밝히고 인류의 지식 범위를 넓혀갈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진행자들도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회의적이고 염세적으로 느끼는 자신을 드러내며 공감했다.

이어 현실과 이상 간 괴리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화학 석사까지 마친 김초엽 작가도 전업작가로 선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는 약간의 과감한 도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행자들은 작품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약자나 소수자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시혜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인 한테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제 안에 있는 소수자의 모습, 그러면서도 다수자의 위치에서 차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려고 해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여성으로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는 분명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다수에 위치해서 누군가를 차별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면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외된 면과 차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야기에 담고 싶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행자들이 이번 대담에서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세 번째 파트,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여성으로서의 감각에 대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갔다. 수많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청년들에게 "저는 고민들을 머릿속에서 굴리기보다는 글로 한번 풀어 써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고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짚어보다 보면 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해결될 수 없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결될 수 없는 고민들 대부분이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세계의 고민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래도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당장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다음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에 대한 주제도 이어갔다. "사랑이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나에게 반려 로봇이 생긴다면 그 로봇과 나의 관계는 얼마나 불평등하고 또 얼마나 평등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관계의 균형이나 무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성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에서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보다 그 이상적인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그리는데 '그 실패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소설에 담아보고 있어요." 작



품 속에서 사랑과 연대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김초엽 작가는 어디서 희망과 애정과 인류애를 찾는 것일까? "인류애는 참 얻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인류애를 외부적으로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인류애를 가진다고 말할 때 그 대상은 집단으로서 사람이 아니었고 개인으로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관계들도 집단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조금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차이를 많이 드러내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YWCA가 되길

끝으로, 한국YWCA에 대한 기대를 물었다. "우리가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서로 간 차이도 정말 많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차이점들을 흐트리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차이를 많이 발견하고 차이에 대해서 단순히 존중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할 때, 우리가 여성으로서 함께 맞서는 연대의식도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편으로 깊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가 얼마나 다른 지점에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지 발견하게 되거든요. 계속 타인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다름을 많이 드러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외 리더십을 만나는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사람책방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사회현상과 문제 드러내 알리고 희망의 메시지 전한다

제25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이 12월 22일(수) 오후 2시 한국YWCA 연합회 4층 에이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본 시상식은 작년부터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TV프로그램 뿐 아니라 뉴미디어까지 포함하여 좋은 콘텐츠를 선정하고자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에서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상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YWCA는 올해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47편의 후보작 추천을 받고 두 차례에 걸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YWCA청중투표단의 투표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성평등/생명/정의·평화/청년)을 선정했다.

김혜지 TBS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인사말, 김은주 심사위원장의 경

과보고와 심사보고, 이선우 청년 심사위원의 심사소감 발표, 시상 순으로 이어졌다.

원영희 회장은 "코로나19로 급격한 변화 속에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 가운데 희망을 꿈꾸며 더 나은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의, 평화, 생명'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분투하시는 제작자분들께 감사한다"며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과 미디어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김은주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세대별 문화 감수성에 맞춘 심사위원 구성과 YWCA청중투표단의 운영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고려한 심사를 할 수 있어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의 의미와 목표를 세삼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지상파 중심이었던 지금까지의 시상 방식을 뛰어넘어 미디어콘텐츠상의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매체를 수상작 선

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청년 심사위원은 이번 심사 참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좋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상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20대 여성 자살률을 다각도로 분석, 이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를 문제 제기한 한겨레 젠더미디어팀 슬랩의 <조용한 학살이 다시 시작됐다>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지구 온도 상승으로 현재 지구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실험을 통해 보여준 TBS의 <신박한 벙커>가 수상했다.

YWCA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각 부문별 우수상도 선정했는데, 성평등 우수상은 올림픽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선수이기에 앞서 여자로서 겪어야 했던 무수한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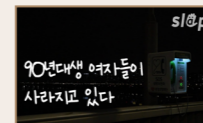
들을 기록한 KBS 다큐 인사이트 <다큐멘터리 국가대표>가 수상했고, 생명 우수상은 시청자가 일상에서 더욱 쉽게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한 SBS 스프스 뉴스 <친환경 캠페인, 가져! 네이처돌이>가 수상했다. 정의·평화 우수상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이주여성 노동자 A씨의 성폭력 사건을 다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폭력 실태와 인권 사각지대의 모습을 드러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의 <나의 참혹한 대한민국:범죄자가 된 성폭력 피해자>, 청년 우수상은 청년 직장인들의 삶을 담백하고 유쾌하게 그리며 긍정의 에너지를 선사한 MBC 밥벌이 브이로그 <아무튼 출근>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 한겨레 젠더미디어 슬랩 <조용한 학살이 다시 시작됐다>

이유정 PD "차별과 혐오를 덜을 정도로 큰 응원과 지지 부탁"

나온 지 1년이 다 된 10분 남짓한 이 짧은 영상을 올해 대상 뽑아주신 것은 아마도 2030여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그만큼 절박하고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페미니즘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은 그 자체로 어렵고 아직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서건 이런 콘텐츠를 만날 때마다 차별과 혐오를 덜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응원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시면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상도 그런 뜻으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TBS <신박한 벙커> CODE RED - 인류 멸종의 시그널

성명주 PD "기후 위기 직면이라는 문제 쉬운 언어로 전달 위해 고민"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인류가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제목을 달긴 했지만 저희는 과학 예능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쉬운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해 함께 걷는 기도순례

회원YWCA 릴레이 순례기도회 1기를 마무리하며

1 구정혜

(사)한국YWCA연합회 국장·차기 사무총장

<회원YWCA 순례기도회>는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YWCA 활동가를 만나 함께 기도하고 싶다는 연합회 원영희 회장님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 태동되었다. 연합회 회장이 회원YWCA 현장을 방문하여 회원Y 활동가들, 특히 청년을 만나 연합회 차기 사무총장을 소개하고,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는 YWCA의 사명 회복을 새롭게 다짐하며 회원YWCA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순례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순례기도회는 “하나되어 함께 기도하기”를 목표로 요한복음 17:11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를 주

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순례는 지난 8월 30일 평화를 기원하며 파주YWCA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총 35군데 회원YWCA 순례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순례기도회는 각 권역별로 기도회를 진행한 회원YWCA가 다음 회원YWCA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방역을 위해 회원YWCA 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지만 20~30대 청년 1명은 꼭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 청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곳도 있지만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실무활동가의 참여가 많고, 청년회원과 자원활동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YWCA



①강릉YWCA ②고양YWCA ③광명YWCA ④광양YWCA ⑤광주YWCA ⑥군산YWCA ⑦김해YWCA ⑧남양주YWCA
⑨노산YWCA ⑩대구YWCA ⑪대전YWCA ⑫동해YWCA

성평등 부문
우수상

KBS 다큐인사이드 <다큐멘터리 국가대표> 이은규 PD “이 작품 통해서 기운 얻었으면”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을 매년 챙겨 보면서 올해는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났었는데 이런 좋은 상을 올해 받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여성 아카이브 인터뷰 다큐 시리즈라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 주신 여성 운동선수 여섯 분이 없었다면 이 작품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동일한 책임감으로 임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상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기운을 얻었으면 했는데, 그것들이 이 상을 통해 증명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부문
우수상

SBS 스프스뉴스 <가자, 네이처들이!> 구민경 PD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제품 접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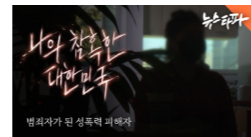
이 캠페인을 처음 기획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제품을 접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에서 참여하는 친환경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는 역부족일지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정부나 기업의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의 좋은 작품과 수상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나은 세상을 위하여 변화된 세상을 위하여 조금씩 바꾸어가는 콘텐츠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나의 참혹한 대한민국: 범죄자가 된 성폭력 피해자> 박상희 기자 “이런 콘텐츠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이주민 노동자 A씨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와 취재에서 A씨를 고용한 모델 사장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수개월 동안 이어졌으나 이후 경찰과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국내외 몽골인들의 감사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한국인들은 많이 봤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저희 뉴스 뿐 아니라 이번 상을 받은 다른 콘텐츠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취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이번 YWCA에서 받은 상금 100만원을 서울 광화동에 있는 '대한 외국인 권익 보호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청년 부문
우수상

MBC 밥벌이 브이로그 <아무튼 출근> 정겨운 PD “아무튼 출근해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밥벌이일 것입니다. 경기 불황까지 지속되고 있는 최근 먹고 사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이라도 밥벌이 해 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무튼 출근해야 하는 보통의 청년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힘든 시기의 좋은 미디어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따스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출근>이 그 공감을 얻어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을 받아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출근해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므로 그들을 격려하고 Y의 현장에서 남아 내일을 책임져 달라는 부탁의 말을 꼭 전하고 있다.

기도회는 참가자 소개 후 사도신경 - 한국YWCA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 읽기와 소감 나눔 - 회원YWCA 기도제목 나눔과 합심기도 - 원영희 회장의 마무리기도 - 찬양과 성찬(초콜릿) - 다음 릴레이 순례자를 받는 회원YWCA를 위한 묵상기도 - 주기도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총 1시간 30분 내외로 마무리된다. 회원YWCA는 따뜻한 차 한 잔만을 준비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성찬으로 나눔 초콜릿은 연합회 회장이 준비하여 참가자들과 나누고 있다.

순례기도회의 핵심은 <한국YWCA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를 읽고 나누는 시간이다. 참석자들이 한 논제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음에 와닿은 논제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굉장히 진솔하게 소감을 나누어주셔서 그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회장으로서, 사무총장으로서, 청년으로서 갖고 있는 고민도 나누고, 회개와 성찰과 감사의 소감도 나누고, 때로는 논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나누어주실 때도 있다. YWCA

의 목적문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선명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 논제를 통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소감도 많이 나누어주셨다. 많은 분이 나누어주신 몇 개의 논제를 소개한다.

- 28. 우리는 모두 한국YWCA의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다.
- 36. 한국YWCA는 조직을 볼 때 교회가 아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단체가 아니다, 교제하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 계모임이 아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시민운동단체이다.
- 16. 한국YWCA는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 39. 한국YWCA는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 49. 한국YWCA의 목적인 정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 38. 한국YWCA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시민운동 단체이다.
- 75.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한다. 교회의 이름을 날리려고 한다. YWCA의 이름을 날리려고 한다. 이것이 창조질서의 파괴이다.

논제를 읽으면서 또 많이 주목하는 문구는 “지금 여기에”이다. 나 또한 논제를 읽고 기도하면서 이 문구가 나오면 항상 밀줄을 치게 된다. YWCA의 목적 수행은 이전의 영광에 기대는 데서 끝나거나, 아니면 미루어 미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성찰의 고백을 많이 나누어주셨다.

이 논제들은 말 그대로 “논제”이므로 연합회와 회원YWCA에서 100주년을 앞두고 이 논제를 바탕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이번 순례기도회를 통해 더욱더 기대하게 되었다.

회원YWCA의 기도제목은 거의 대부분 재정 확보, 이사

와 실무자 등 활동가, 특히 젊은 활동가 확보가 가장 큰 기도제목이고, 재구조화의 원활한 진행과 YWCA 목적운동을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운동체로서의 역할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YWCA 기도제목은 순례기도회 후 연합회 실무활동가들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동안 35개 회원Y에서 거의 18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차기 사무총장으로서 인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 사무총장으로서의 첫 걸음을 회원YWCA 현장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회원YWCA를 위해 쉽지가 않다. 그 직임을 감당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며 순종을 다짐한다. 순례기도회의 자리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YWCA의 존재 그 자체로 든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연합회의 역할에 대해 다양하게 고려하고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기도순례자로서의 연합회 회장과 차기 사무총장을 언제나 기쁘게 맞아주시고, 짧은 방문임에도 큰 감동을 표현해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모든 회원YWCA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해에 이어질 순례기도회를 기대해본다.



13 목포YWCA 14 부산YWCA 15 부천YWCA 16 사천YWCA 17 서천YWCA 18 성남YWCA 19 세종YWCA 20 속초YWCA
21 순천YWCA 22 안산YWCA 23 양산YWCA 24 여수YWCA



25 울산YWCA 26 의정부YWCA 27 익산YWCA 28 전주YWCA 29 진주YWCA 30 천안YWCA 31 청주YWCA
32 춘천YWCA 33 파주YWCA 34 평택YWCA 35 하남YWCA

2022 제20대 대선 정책 의제 발표

탈핵·기후,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 4개 부문에서 각 13개 영역 총 75개 과제를 의제로 제안

탈핵기후 부문에서 2050 탄소중립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 계획 수립,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탈핵탄소중립사회 구축을 목표로 제시

평화 협정 체결과 추진전략 마련,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 등을 각 부문의 목표로 제시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2개 회원YWCA의 논의를 통해 결의한 탈핵기후,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 총 4개 부문에서 13개 영역 총 75개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다.

한국YWCA연합회 정책의제는 52개 지역 회원YWCA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자에게 요청한 공개 질의서 답변은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고 회원YWCA 유권자 운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원YWCA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의제를 개발해 나가게 된다.

탈핵·기후위기 부문

● 목표 : 탈핵·탄소중립 사회 구축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적 계획 수립
 - 2050 탄소중립목표 2010년 대비 45% 상향조정 및 각 부처 통합적·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 수립 :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요관리, 에너지 비용 정상화,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태양광·풍력 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 정비), 기존 발전회사 책임성 강화, 주민이익공유제와 같은 공감대 형성 정책 포함
 -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 기업 규제 제도 강화 : 탈석탄 로드맵 포함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 폐기 : 가덕도, 새만금, 울릉, 제2 제주, 흑산 등의 공항개발계획 철회, 삼척을 비롯한 신규석탄 발전 건설 중단
 -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한 참여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투자 방향에 핵발전 배제의 원칙 포함
 - 탈핵 로드맵 재수립 및 관련 법 제도화 :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신한울3,4호기) 및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금지, 부실 공사 핵발전소 폐쇄(한빛1,3,4호기), 월성 핵발전소 2,3,4호기 조기 폐쇄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상과 역할 강화
 -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발전 확대 연구 예산 삭감
 - 탈핵에너지전환체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제도화
-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대응책 마련
 -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및 기준치 강화
 - 핵발전소 인근지역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 탈핵·탄소중립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탈핵 기후의제 부문은, 첫 번째 영역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 2010년 대비 45% 상향 조정과 각 부처의 통합적·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 수립, 탄소배출 기업 규제 제도 강화, 신규석탄 발전 건설 중단과 신공항 개발 계획 철회,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한 참여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분배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함께 에너지 비용의 정상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하였으며, 무엇보다 기후 위기가 여성들과 취약계층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과 지원을 위한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통해 기후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인 탈핵 정책 수립

과 이행 영역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 정책과 투자 방향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핵발전을 배제하는 원칙을 포함할 것, 신한울 3,4호기 등의 신규핵발전소 금지, 한빛 1,3,4호기 등의 부실 공사 핵발전소 폐쇄,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 등을 담은 탈핵 로드맵 재수립 및 관련 법 제도화,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상과 역할 강화, 비경제적이고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발전 확대 연구 예산 삭감, 탈핵에너지전환체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제도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담고 있다. 세 번째 영역인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대응책 마련,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및 기준치 강화, 국내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로 인한 핵발전소 인근지역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평화·통일 부문

● 목표 : 평화 문화·체제 기반 구축

- 평화구축 과정의 여성 참여 촉진
 -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율 50%로 확대
 - 통일부 내 WPS(여성·평화·안보) 관련 기구 설치
 -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정부여성기구 추진
- 평화협정 체결과 추진전략 마련
 -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 남북경협 합의 이행 추진단 설치 및 로드맵 작성과 거버넌스 구축
 - 남북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포괄적 대북 제재의 해제 방안 마련
-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
 - 북한민(탈북민) 여성폭력 피해 및 위기 상황 지원 위한 종합·원스톱 방안 마련
 -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전담 교육 기관 및 센터 개설
 - 남북 청년세대의 교류협력기구 및 조직 설치
 - 공직자 평화 교육 의무화 및 시민 평화교육 지원과 확대

▶▶▶ 평화 문화와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 부문에서는, 첫 번째 영역인 평화 구축 과정의 여성 참여 촉진을 위해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 영역인 평화협정 체결과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남북경협 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그리고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 여성과 취약계

층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포괄적 대북 제재의 해제 방안 마련 등을 구체 과제로 제안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북한민(탈북민) 여성폭력 피해 및 위기 상황 지원 위한 종합·원스톱 방안 마련,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전담 교육 기관 및 센터 개설, 남북 청년세대의 교류협력기구 및 조직 설치, 공직자 평화 교육 의무화 및 시민 평화교육 지원과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부문

● 목표 :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재난 대응 정책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

- 성평등임금 공시제 확대 실시
-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임금 및 성별 정보 추가 게시
- 주권상장법인 기업 전수 대상 여성임원 할당제 확대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 준수율 개선
- 정부 지원 돌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처우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선
- 중앙부처 고용 평등 노동정책 총괄 부서 복원
-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복원
- 고용노동부 지원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

→ 젠더폭력 처벌 및 예방

-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
-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 권력형 성범죄 사건 처리체계 작동방안 마련
-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공공부문, 학교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 디지털문해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 체계 수리 및 시행

→ 학교 내 성범죄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도입

-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포괄적 성평등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의무화
- 예비교원 성평등교육 강화 및 자격화
- 학교 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확립 및 지표 개발 적용
- 성범죄 교원 교원자격박탈 및 신상공개 의무화
- 피해학생 보호 시스템 확립 및 강화
- 교육분야 성평등정책 컨트론타워 확립
- 성평등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체계화
- 성평등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교육 강화

▶▶▶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성평등 부문 첫 번째 영역인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재난 대응 정책 강화에

서는 성주류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문제전담기구 (여성가족부)의 지위·권한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 정

책 수정 및 보완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영역인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 사업장별 성평등임금 공개, 지방공사 및 공단 외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임금 공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 준수율 개선, 시간급 돌봄노동 일자리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근로시간 인정,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본 가이드라인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전담 부서 설치,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설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법 분법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젠더폭력 처벌 및 예방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형법」 개정,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권력형 성범죄 사건 처리체계 작동방안 마련,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마지막 학교 내 성범죄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도입에서는,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성평등 매뉴얼 개발 및 질 개선, 교육 분야 성범죄 처리와 결과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젠더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강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청년 부문

● 목표 :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를!

→ 청년 주거지원 제도 확대

- 1 청년 월세지원제도의 대상자 기준 완화
 - 근본적인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제도 마련
 - 사회초년생의 청년 또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경제활동 현황 분석에 따른 대상자 기준 완화
- 2 지역별 청년 주거지원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별 청년인구, 청년경제활동 및 부동산현황과의 연계 분석
 -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절한 지원제도 마련 상황 파악을 위한 청년지원제도 전담인력확충

→ 청년 고용 지원계획 확대

- 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 취업 준비 지원
 -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
 - 학생들의 취업기술 습득을 위한 비대면 실습방안 연구 및 마련
 - 기업과 고졸청년의 연계를 위한 고졸청년 인재 육성모형 구축
-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확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 여성청년의 취업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 미취업자 실태조사 진행

→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1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 근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분석
 - 등록금 완화에 따른 교육의 질 하향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
- 2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기준 및 등록금 사용에 관한 감사 확대
 -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기준 및 사용·관리에 대한 감시체계 도입
 - 사립대학 대학등록금 책정 기준 공개 의무화,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근거 분석을 위한 공적회계시스템 구축, 종합감사 확대

▶▶▶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를 목표로 하는 청년 부문은 청년 주거 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대상자 기준 완화, 지역별 청년 주거지원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하고, 청년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 취업 준비 지원, 청

년고용촉진 특별법 확대를 구체적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해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기준 및 등록금 사용에 관한 감사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청년 부문 과제는 대학청년Y 회원들의 요구를 통해 작성되었다. 🏠

2021년의 문화, 절망과 희망

| 김선영

대중문화 평론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

언택트 열풍에 힘입어 도약한 K-컬처

지난해에 이어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19 범유행의 그늘에 놓인 한해였다. 피로와 우울이 가중되는 힘겨운 시대에, 사람들을 위로한 것은 문화의 힘이였다. 올 한해 한국 대중문화는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의 언택트 열풍에 힘입어 오히려 한층 높은 도약의 시기를 맞이했다.

2021년 9월,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시장에 공개된 이 시리즈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이용자들 사이에서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조차 시작에 불과했다. 곧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지역에서 시청 순위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은 공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한다. 시청 기록보다 놀라운 것은 화제성이다.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은 드라마로 국한되지 않고, SNS를 중심으로 극 중 음식, 소품, 의상, 음악 등 거의 모든 요소가 패러디 열풍의 대상이 되는 엄청난 파급력으로 이어졌다.

이전까지 한류의 흐름은 1990년대 아시아 지역 중심의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시작해, 21세기 들어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팝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위시한 한국 영화 등 K-콘텐츠를 향한 관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매개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대 흥행작이 탄생하면서 이제 K-컬처 전반에 대한 국제적 주목도가 높아진 것이다. <오징어 게임> 이후 <마이 네임>, <연모>, <지옥> 등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인 K-드라마들이 잇달아 글로벌 흥행대열에 합류하고, 드라마를 시작으로 K-컬처를 분석하는 외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익숙한 장르물에 참신한 설정을 녹여낸 K-드라마

K-컬처 유행을 주도하는 K-드라마의 힘은 무엇일까. 외신을 포함, 여러 평가를 분석해보면 몇 개의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익숙한 장르물에 참신한 설정을 녹여냈다는 점이다. 원래 초기의 한류를 견인했던 드라마들은 대부분 멜로 장르였다. 은사마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겨울연가>를 비롯한 사계절 로맨스 시리즈, 김은숙 작가의 '연인'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새롭게 주목받는 K-드라마는 좀 더 폭넓은 장르에 포진되어 있다. 가령 넷플릭스 최초의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킹덤>은 좀비 아포칼립스, 최대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은 생존 게임 장르, 최근 공개된 <지옥>은 초현실적 재난을 다룬 코스믹 호러물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장르물 공식에 한국적 상상력을 절묘하게 녹여내, 장르에 익숙한 서구의 시청자에게는 신선함을, 장르물이 낯선 국내 시청자에게는 친숙함을 선사했다. 예컨대 <킹덤>은 이야기의 배경을 조선시대로 옮겨 양반과 좀비의 충돌이라는 색다른 풍경을 펼쳐 보임으로써, 연상호 감독의 영화 <부산행>과 더불어 K-좀비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오징어 게임>은 폐쇄 공간에서 최후의 우승자를 뽑는 생존 게임의 틀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설탕 뽑기 등 우리나라 골목 놀이를 중심 소재로 사용해 참신한 이야기를 전개했다.

사회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결합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요인이다. 최근 호평받은 K-드라마들의 공통점은 장르적 흥미로움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사회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결합했다는 데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만연한 현실 사회를 반영하는가 하면 인류에 대한 희망도 그려낸 K-드라마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돋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 심화 현상이다. 팬데믹의 장기화는 경제·고용 충격이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뜻하는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대두시켰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는 바로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예리한 인식이 자리한다.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을 비롯해 드라마의 생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던 이들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인 기훈이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뒤 회생하지 못한 채 밑바닥 삶을 전전하는 모습은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 기택(송강호)이 몰락한 과정과 일치하기도 한다. <기생충>이 양극화의 현실을 수직적 계급 질서를 상징하는 주택 구조로 보여줬다면, <오징어 게임>은 관전자인 VIP 계급과 약자가 제일 먼저 탈락하는 생존 게임 구도로 표현한 것이다.

<킹덤>의 주제도 마찬가지다. <킹덤>의 조선시대는 이색적인 좀비물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을 넘어, 피지배계층의 고통을 묘사하기 위한 설정이다. 좀비 재난의 근본적 배경에는 지배계층에 의해 착취당한 민초의 현실이 있고, 굶주린 좀비들의 얼굴 위로는 아사당한 백성들의 고통이 새겨져 있다.


혐오와 폭력의 현실사회, 인류에 대한 희망도 그려

최근의 K-드라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또 하나의 지구적 문제, 즉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만연해진 현실도 반영되어 있다. <지옥>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인간에게 천사

라 불리는 초현실적 존재가 나타나 지옥행을 통보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타인을 함부로 낙인찍는 사회의 공포를 이야기한다. 인간들이 지옥행을 선고받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통보를 받은 즉시 그는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그 가족까지 멸시의 대상이 된다.

확진자들 뿐 아니라 특정 지역과 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테러까지 불러온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어둠이 겹쳐지는 부분이다.

<킹덤: 아신전>에서도 같은 모티브가 발견된다. 천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아신의 부족이 당하는 고통은 다른 민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다. <킹덤: 아신전>은 이들이 최초의 좀비였다는 설정을 통해, 오리지널 시즌의 좀비에 투영했던 피지배계층의 경제적 재난 위에 인종차별적 재난까지 더한다. <오징어 게임>의 또 다른 주요 인물 새벽(정호연)과 알리아(누팜)에게서도 같은 비극을 목격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인 '새벽'과 이주노동자인 '알리'의 고난에는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이들 계층의 현실이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다. 새벽은 탈북민들을 겨냥한 브로커 사기극에 걸려들어 고통받고, 알리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공장주에게 노동을 착취당한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앞선 K-드라마들은 그럼에도 하나같이 인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 <오징어 게임> 최후의 생존자 기훈은 게임의 상금이 죽은 자들의 목숨값이라는 걸 인식하고 애도를 표하며, <킹덤> 시리즈는 재난 상황에서도 연대하는 자들의 승리를 이야기한다. <지옥> 역시 인간의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에게서 구원의 빛을 찾았다. 이는 문화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기능이다. 어두운 현실을 정확하게 비춰야 거기서부터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올해 우리 대중문화가 보여준 절망이자, 새롭게 찾은 희망이다. 

COP 자체가 문제임을 드러낸 COP26, 또다시 기후정의를 외면하다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진통 끝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초라하고 지구 기후와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기후 과학과 인권의 목소리보다 주요국의 경제적 이해 득실이 회의를 좌우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회의는 지난 10일 발표된 초안과 이후 나온 새로운 문구의 안을 거치면서 더욱 후퇴해갔다. 석탄 사용 중단과 감축 계획 강화는 각국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화석연료에 관한 언급이 최초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인은 누구나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탄소저감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탄 사용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중단 같은 전제를 단 표현은 어떻게든 석탄 사용과 보조금을 지속하기 위한 논거에 불과하다. 각국이 내년까지 15도에 부합하는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새로 취합된 NDC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요청 수준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이번 회의는 기후 자금금 수준과 시한을 명시했다. 이 역시 규모와 집행에서 기후취약국의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기후정의 실현은 또다시 목살되고 지연되었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이제까지 25차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반복해왔다. 약속의 이행을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고, 정작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하며, 당사국들과 그 배후의 기업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문구를 조정하고 타협하며, 대단한 결과가 나온 양 포장해서 발표하는 연례 행사였다. 이번 글래스고의 COP26 역시 그 궤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회의의 구조와 관행을 비판하며 장외에서 필사적으로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사회의 행동이 더욱 절실히 펼쳐졌던 게 달랐을 뿐이었다.

국제 기후운동은 "티핑포인트 1.5도라는 분명한 목표 위에 논의를 진행할 것, 불확실한 기술적 흡수 수단 포함하는 '탄소중립(net-zero)'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의 배출제로를 지향할 것, 선진국이 기후피해국과 취약국에 충분한 책임과 지원을 할 것,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이 전면에서 나서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사국총회의 공식 회의가 추상적 문구만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과 가장 중요한 해법들은 배제되었다. 당사국총회 자체가 함께 바뀌어야 할 체제의 일부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COP26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산술적으로 급조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숫자놀음으로 감축량을 기만한 NDC를 제출하며, 마치 모범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시나리오와 목표를 면밀히 살펴보는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COP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탈석탄 시점을 국제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2050년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며칠 뒤 산업부 장관이 서명한 '2030년대 탈석탄 선언'에 대해서는 단순한 '노력'의 의미로 해명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당사국총회를 전후로 한국의 산업계와 보수 언론은 이러한 목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절박함 앞에서 거의 자기분열과 후안무치에 가까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당사국총회는 이렇게 종료되었지만, 한국의 과제는 더욱 많아졌다. 우선 이번에 제출한 NDC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탄소예산과 1.5도 목표를 위한 국제적 책임에 입각하여 NDC 재상향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이 아니라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위한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탈석탄 선언의 의미를 인정하고 신규 석탄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담보하지 못하며 사실상의 기업 지원 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기하고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논의에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이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의 작업과 활동이 미진했고 태도가 안일했다는 것을 먼저 환기해야 한다. 이제와는 다른 기후행동과 기후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COP26은 COP자체가 문제임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1.5도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실현은 또다시 외면당했다. 무책임한 자연이 계속되는 이 순간에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의 삶은 기후재난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COP회의장 밖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싸운 이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바로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COP26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에 해야 할 과제다.

2021년 11월 1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위험한 핵발전은 기후위기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안전한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

오늘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2022탈핵대전연대를 출범한다. 2022탈핵대전연대는 차기 정부가 안전을 우선으로 한 국정 운영의 기틀로서 '조기 탈핵'을 약속하고 제도화하도록 견인할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능하는 대신이라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탈핵을 성급히 추진시켜 낼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핵발전의 참사, 지워지지 않는 참극을 목도했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현장과 주변은 농토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고,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 참극은 우리에게 탈핵만이 핵발전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땅에서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안전사고와 고장을 수백 번 반복한 채 불안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피해와 회생을 전제로 가동되는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하다. 핵발전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 피해와 확산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뿐이다. 매일 쏟아지는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탈핵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탈핵의 정책 방향은 희미해지고 있다. 기후를 빌미 삼아 핵발전을 옹호하고 확대하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주장하는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듯 폭력과 폭우 앞에 무력하게 핵발전은 멈추고 있다. 기후위기의 극심함과 빈번해진 이상기후가 핵발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핵발전이 탄소 감축의 수단이기 커녕, 기후위기에 위태로운 발전임을 보란 듯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을 중단할 탈핵로드맵을 약속하라.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신규 핵발전과 설계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탈핵을 법으로 명문화하라. 위험의 수출, 핵발전소 수출 역시 중단하라.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폐기물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자원이 아니다.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핵산업진흥부서가 아니라 독립적 행정기구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 안전규제와 방사성 물질 배출 제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영향 평가를 마련하고 다수호기로 밀집된 핵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영향과 피해는 심각하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핵발전소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 인접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세계와 우리의 바다가 심각한 방사선 오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차기 정부는 후안무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저히 막기 위한 실효성있는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2022탈핵대전연대는 국민들이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으며, 핵발전소를 원하는 지역과 유권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 대선 정국, 정치권에게 다시금 각인시켜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을 옹호하고 핵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보인지, 철 지난 과거에 매달려 다가올 미래를 잡아먹는 후보인지 폭로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더 나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가려내고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핵발전을 옹인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기만이다. 10년 전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분명히 목격했고, 2016~2017년 핵발전소가 인접한 경주-포항 지역의 지진을 경험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핵발전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2022탈핵대전연대는 하루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대선 후보들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호소드린다.

2021년 12월 15일

2022탈핵대전연대

가톨릭기후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를담수녀회,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불교생태관전초연구소, 불교환경연대, 광양만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투위, 삼척핵발전소소대투쟁위원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소비자기후행동오아시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아이쿱생활(강남, 강서, 금천한울, 도봉노원디딤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예수회JPC위원회,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회정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농민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청초보전연대, 천주이성요한JPC, 청소년기후행동, 초록을그리다,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C본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총부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66개 단체)

한국YWCA 역사전시관 개관



2021년 11월 페이지 명동 7층에 한국YWCA 역사전시관이 개관했다. 2019년 운영했던 한국YWCA 역사관 '이제'에 이어 한국YWCA 10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를 알리고, 리모델링된 새 회관에서 더욱 시민들과 많은 소통하기 위함이다. 연대기별 주요 활동과 역사를 담은 전시물, 회원YWCA와 연합회 역사 서적, 창립 기념 우표와 배지, 회의록 등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방문한 시민들이 한국YWCA 100주년 주제와 엠블럼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있다. YWCA 운동과 프로그램, 사회적 의미가 있는 외부 전시를 진행하는 특별 전시 공간에는 현재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검은 목요일'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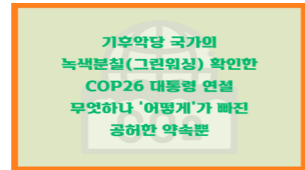
한국YWCA 채플실 개관



한국YWCA 100주년을 기념하여 퀸즈YWCA 홍인숙 총무, 故 서희전 선생의 후원으로 2021년 11월 YWCA 채플실이 페이지 명동 8층에 개관했다.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한국YWCA의 정체성이 담긴 채플실은 방문자들이 마주 앉아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과 소규모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플실을 대표하는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은 연합회 이한빛 활동가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한국 전통 문양인 조각보와 한국YWCA의 가치가 담겨있다. 채플실은 YWCA를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예배나 기도 공간으로 쓰

이며, 회원YWCA, 소규모 기독 모임 등에 무료로 대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6쪽)

기후약당 국가의 녹색분질(그린워싱) 확인한 COP26 공동성명 발표



지난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다. 11월 1일 진행된 문제인 대통령의 기초연설 내용에는 세계 정상들이 기후 위기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미흡하였고 그린워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기후위 기공동행동은 국내 기후 위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약당 국가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2쪽)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은 11월 11일(목) 서울YWCA강당에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2021년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제주도 올레길을 개척해 자연과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공헌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대상을, 과학의 전문 지식 영역과 SF소설의 창작 영역을 결합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의 소수자와 차별 등 현실의 문제를 깊이 있게 조망한 김초엽 소설가가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특별상은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활약과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도전정신과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김연경 선수가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

YWCA 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세계YWCA-세계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이 진행되었다. 이번 기도주간은 '깨어짐



로부터 오는 아름다움 (Beauty from Brokenness)'로, 코로나19로 인해 깨어진 일상과 삶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합회는 서울YWCA 주관으로 11월 10일(수)에 한국YMCA전국연맹과 연합예배를 드렸으며, 100여명의 이사 및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였다. 예배 후에는 각 단체 참석자 및 소식 소개의 시간을 통해 친교를 나누었다.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성경읽기가 진행된다. 자료집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안내의 따라 성경을 읽으면, 따로 또 같이 세계YWCA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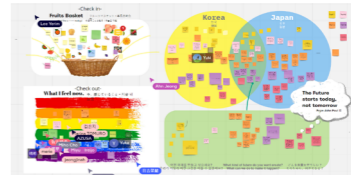
YWCA어린이집 협의회



2021년 YWCA어린이집 협의회가 11월 12일(금) 한국YWCA 강당에서 18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아동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YWCA의 재구조화 진행에 따른 행정절차 설명을 통해 어린이집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 20회 한일Y청(소)년협의회

지난 11월 13일(토)을 마지막으로, 제 20회 한일Y청(소)년협의



회가 종료되었다. 9월 4일에 진행되었던 1차 모임에서는 호리에 유리 목사가 에큐메니칼 관점의 성평등과 퀴어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LGBTQ+에 대한 시각을 넓혔다. 10월 2일에 진행된 2차 모임에서는 양국 <LGBTQ+와 종교>를 주제로 국가보고를 진행했다. 한국 참가자들은 한국의 무지개 예수, 퀴어 퍼레이드 등의 활동을 알렸다. 후에 토의를 진행하여 남성 중심의 에큐메니칼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에큐메니칼 관점에서의 평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 모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각 국가에서 진행할 액션 플랜을 기획하고, 개인으로서 앞으로 젠더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청년들은 SNS 및 메타버스를 통한 LGBTQ+ 인권교육을 기획했다. 또한 한일Y청(소)년협의회를 통해 동아시아 여성 청년 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협의회인 제 21회 한일Y청(소)년협의회는 2023년에 한국YWCA의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



11월 25일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로, 한국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UN Women에서는 12월 10일까지 젠더폭력에 저항하는 16일 간의 운동(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based violence)을 전개하였다. 연합회에서는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준비하며 연합회 7층 역사관 안쪽 특별전시 공간에 '검은 목요일'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회원YWCA가 참여했던 캠페인 사진과 함께 검은목요일 캠페인 설명을 게시하였다. 내년에는 회원YWCA 순회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회원YWCA에서는 각 회원YWCA의 운동 내용에 따라 여성폭력추방주간 활동을 전개하였다. 포항YWCA는 가정폭력 예방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성남

YWCA는 피켓 시위를, 남양주YWCA는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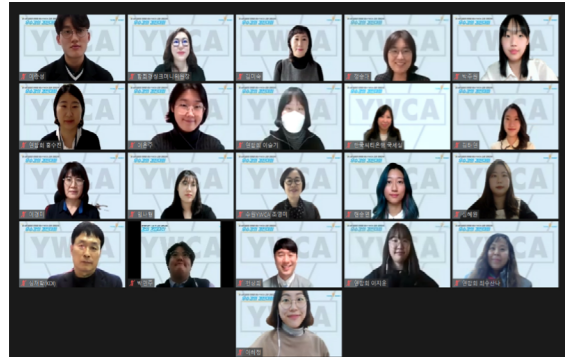
2021년 소비자 교육사업 최종보고회



2021년 진행된 소비자 교육사업 최종보고회가 각각 11월 중 진행되었다. 청소년 당나트름줄이기 교육은 6개 회원Y에서 총 12회,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12명이 강사교육을 수료하고, 11개 회원Y에서 총 28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취약계층소비자 교육 30명 강사교육을 수료하고, 17개 회원Y에서 총 25회, 찾아가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맞춤형교육은 6명이 강사교육을 수료하고 3개 회원Y에서 총 6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교육, GAP리더교육 등 소비자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정보에 취약하고, 소외된 시민들에게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주권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4회 새로운 미래를 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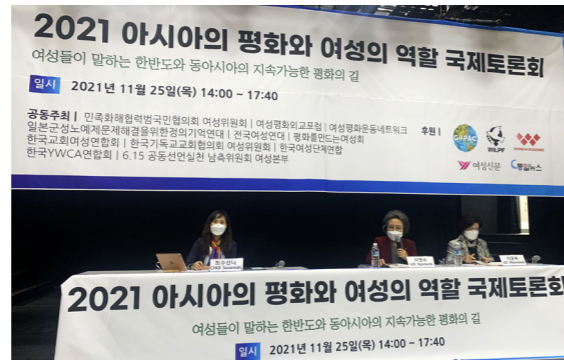
YWCA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



제4회 새로운 미래를 여는 YWCA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가 11월 25일(목) 온라인에서 개최되었다. 새로운 금융·경제교육 콘텐츠와 교수법 개발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개인 부문 최우수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주제로 한 김미숙(익산YWCA) 쌤크머니 강사, 단체부문

최우수상에는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체험 활동 중심의 금융경제교육'을 주제로 이은주, 천상희(구미봉곡초등학교, 성암초등학교) 교사가 수상하였다. 또한 쌤크머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금융교육에 활성화를 기여한 서울YWCA와 안산YWCA(청소년 문화의집)가 우수회원YWCA로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 강의안으로 선정된 강의안은 지역의 금융·경제교육 강사들에게 추후에 배포하여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 토론회



지난 11월 25일(목) 오후2시 남북여성교류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 토론회'가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약 8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으며, 30년 전 토론회 행사의 성과와 더불어 추후 과제와 공동 행동을 논의하였다. 한국YWCA를 비롯한 평화여성회, 정의기억연대, 여성평화외교포럼, NCCK 여성위원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등의 국내여성평화단체들이 주관하고, 일본YWCA, 캐나다연합교회, 일본 WILPF, 중국 Charhar연구소, 미국 WCD-MZ, GPPAC 등이 함께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2쪽)

2021년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



11월을 마지막으로 상반기부터 진행되었던 2021년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를 마쳤다. 11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에는 '20대 선거 대응 활동 논의 워크숍'과 병행하여 회원YWCA 대선 및 지선 활동가들과 함께 대선 유권자 운동 및 지선과의 연계

에 대해 논의하였다. 11월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대면/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진행되었지만,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활동가들의 열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0대 선거 대응 활동 논의 워크숍은 1) 한국YWCA 20대 대선 정책 제안 설명 2) 회원YWCA 선거 대응 활동 사례 소개 3) 워크숍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선거 대응 활동 사례 소개는 안양YWCA 이규숙 국장이, 연합회 성평등 운동 책임위원인 김은경 위원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6쪽)

모금 시스템 도너스(DONUS)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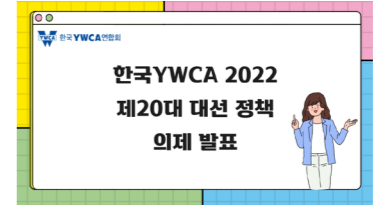


(사)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회원YWCA는 사회적 요구와 기준에 맞는 후원/회원관리를 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인 도너스(DONUS)를 도입 중에 있다. 도너스는 CMS 관리뿐만 아니라,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모금 및 캠페인 활동을 온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에 연합회와 3개 회원YWCA에서 가장 먼저 도너스 도입을 완료하였다. 이어서 11월과 12월에 3개 차수에 걸쳐 총 19개 회원YWCA에서 도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총 22개 회원YWCA에서 도너스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다. 이후 29개 회원YWCA는 2022년 1월과 2월에 나누어 데이터 이관을 계획 중이며,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에는 모든 회원YWCA에서 도너스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도너스 프로그램 기능 소개 및 사용 방법 안내를 위한 '도너스 사전 교육'과 '도너스 관련 질의 응답을 오픈 세션 형태로 진행하는 '도너스 Q&A 세션'이 각각 지난 11월 24일(수)과 30일(화)에 진행되었다. 회원YWCA의 후원/회원관리 담당자들 약 3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도너스 프로그램과 이후의 회원 관리 방안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대선 한국YWCA 정책 의제 제안

연합회는 지난 12월 초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YWCA 정책의제를 발표하였다. 주요 운동 부문인 탈핵기후,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에서 13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총75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와 함께 전달하였다. 정책 의제는 각 운동별 TF에서 논의하고, 전국회원YWCA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 연합회 중점운동 책임위원 연석회의, 사무총장협의회, 실행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이후 각 당 질의서 답변을 분석 보도하고 회원YWCA 유권자 운동에 활용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42쪽)

2021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경기) 교육



수도권 지역 경제교육센터(경기)는 경기지역의 9개의 회원YWCA(광명,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의정부, 파주, 하남)와 함께

2021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지역 내 총 12,102명의 취약·소외계층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장애인, 돌봄노동여성,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이 경제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각 대상 별로 필요한 경제교육 내용을 준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만족도도 높았다. 내년에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과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YWCA 기록물 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YWCA아카이브팀은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3개 회원YWCA(광주, 서울, 대구Y) 대상으로 각 회원Y에서 필요로 하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2월까지 회원YWCA 기록물 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아카이브팀과 협력하여 5월 14일(금) 담당자 회의를

통해 3개 회원Y의 기록물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컨설팅의 목표와 일정을 세워 각 회원Y의 상황에 맞게 2-3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직접 회원Y를 방문하며 기록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각 회원Y에서 시급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과제들을 놓고 전문가와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원Y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



2021년 회원Y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이 11월과 12월 두 달간 4개 회원YWCA(안동, 익산, 제천, 포항)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회원Y 재구조화 필요성 및 방향,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법인 이사의 책무성, 비영리법인 설립단계별 세부절차의 내용으로 조직혁신지원국 국부장들이 지원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진행된 회원Y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은 42개 회원YWCA, 3개도협의회 대상으로 총 48회 진행되어 누적 교육 참가자 수는 973명에 육박한다(12.17 현재일 기준, 교육 미참가자 온라인 강의 이수 확인서 제출자 포함). 회원Y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은 미진행된 11개 회원YWCA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 하반기 정기총회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 하반기 정기총회가 12월 2일(목) 제주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렸다. 전국의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참여하여, 각 센터별 2021년 주요 사업과 교육실적을 발표하였다. 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지역경제교육센터는 2021년 주요 사업으로 올해 개발한 2가지 학습지도안(기후와 경제, 핀테크) 내용과, 센터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양성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였다. 센터 별 발표 후에는 2022년 지역경제교육센터

협력사업으로 고등학생 대상의 학습지도안 개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21 YWCA 성탄 예배와 유성희 상임이사 이임식



YWCA 성탄 예배가 12월 9일(목) 오후 2시에 유튜브 중계로 진행되었다. '버리고 비우며 낮아진 성탄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강교자 이사장이 말씀을 전하고, 실행위원들의 특별 찬양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성탄 예배 이후에는 유성희 상임이사의 이임식이 진행되었다.

유성희 상임이사는 1991년 한국YWCA연합회 간사로 YWCA에 입사하여 프로그램부, 지도력 양성위원회 부장을 거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0대 최연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실무총책을 맡았다. 이후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연합회, 후원회, 복지사업단 3개 YWCA 법인의 상임이사로 활동하였다. 30여 년 간 YWCA에서 실무활동가로 활동하며 실무총책을 맡았던 유성희 상임이사는, 재임 기간 동안 혁신, 소통, 연대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100주년을 맞는 한국YWCA 운동과 운영 측면에서 YWCA의 위상을 높이고, 100주년을 넘어서도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이행자리더십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이임식에서 회원YWCA, 연합회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은 유성희 상임이사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며 이임의 인사를 나누었다.

2022 지방선거 여성대표성 강화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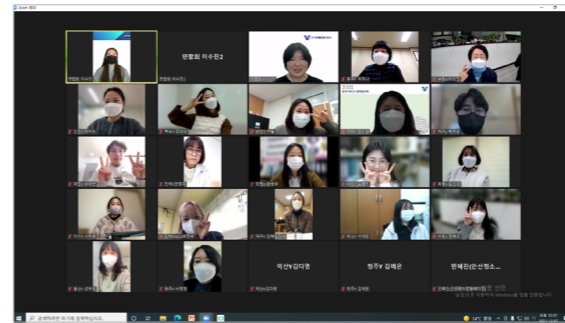


12월 7일, 2022 지방선거 여성대표성 강화 토론회를 온라인에서 진행하였다. 본 토론회는 한국YWCA연합회 주관, 한국여

성의정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1)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대표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2) 또 여성대표성 강화가 YWCA 운동 및 여성시민단체 활동에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연합회 성평등운동 책임위원인 김은경 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과 한국여성의정 신명 상임대표가 인사말로 자리를 함께하였다.

주제발표로는 박진경 교수(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가 '2022 지방선거 대비 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본 여성대표성 확대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으로는 최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장), 조양민 위원(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반혜영 사무총장(장원YWCA)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YWCA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Youth Peacer Space> 오픈



YWCA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Youth Peacer Space>이 오픈했다. 평화를 만드는 청(소)년들의 공간이라는 의미이며, 지역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YWCA 청소년운동을 펼치고자 만들어졌다.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를 모으고 활동할 수 있다. 해시태그, 투표, 공감 기능을 통해 비슷한 이슈를 모아보거나 각 지역별 활동을 지지하고 타지역 청소년에게 알릴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위해 모바일형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연동형 어플을 개발했다. 지역공동체활동의 디지털버전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결하여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12월 7일(일), 11일(목) 두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YWCA 청소년운동과 비전, 플랫폼과 일상활동의 연계 방안, 플랫폼 운영방향 제안등을 주제로 청소년, 지역 실무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했다.

2022 탈핵대선연대 출범식

12월 15일(수) 오전11시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2022 탈핵대선연



대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각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소를 기후위기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위험한 핵발전은 기후위기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안전한 세상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한국YWCA 대표로 발언에 나선 연합회 최수산나 국장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며, 여성들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폐기하는 것'이고, '기후위기대응과 탈핵이 함께 가야만 하고 함께 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선언문에는 총66개 시민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출범 선언문은 49쪽)

젊은지도자상 수상자 김초엽 작가와의 만남



한국YWCA연합회는 12월 21일(화) 저녁 7시부터 유튜브로 <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첫 번째 사람책방>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인공으로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수상자인 김초엽 작가를 초대했다. 한국YWCA 100주년을 준비하는 YWCA 청년참여단 회원들의 기획과 진행(김예지, 서다미 회원)으로 '내가 꿈꿔온 세계',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꿈꿔갈 세계'로 나누어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가고 싶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대담형식으로 진행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과 함께 인간애, 희망,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감각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사람책방은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YWCA 운동의 출발점인 청년들과 함께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리더십 만남의 시간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후원현황



1. 100주년사업 후원 (2021. 12. 27 현재)

이름	후원 금액	후원처	이름	후원 금액	후원처
홍인숙,故 서희전	2,000만원	채플실 조성 후원	박동순	20만원	100주년사업 후원
황혜숙	1,000만원		박은실	20만원	
정이숙(목포Y)	100만원		배정미	20만원	
전국증경회장단 모임	500만원		송록희	20만원	
연합회 회장단	1,000만원		최수산나	20만원	
동부지역 회장단	10만원		이혜련	10만원	
합회경 / 유성희	각 100만원		권오형	100만원	
합계	50,200,000				

2.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후원

이름	후원 금액	이름	후원 금액	이름	후원 금액	이름	후원 금액
김순영(자문단)	100만원	임국이(대전Y)	100만원	원영희	100만원	이종임	100만원
박용옥(자문단)	100만원	김영희(연합회)	300만원	조은영	100만원	이숙현	300만원
이주영(서울Y)	200만원	고미연 / 강나파(제주Y)	각 100만원	이은영	100만원	함희경	100만원
최현자(청주Y)	100만원	홍기자(전주Y)	100만원	이혜경/김애자(목포Y)	각 100만원	유성희	100만원
유도희(여수Y)	100만원	박금자(강릉Y)	100만원	한영수	100만원	이주영(연합회)	100만원
합계	27,000,000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1. 10. 1 ~ 12. 28)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견지울,곽지영,김난주,김병찬,임정임,배정미,배한솔,배한울,안정희,양진옥,원영희,유성희,이혜련,장미란,조은영,최수산나	490,000
회원YWCA	대구YWCA, 부산YWCA, 세종YWCA, 천안YWCA	1,520,000
합계		490,000
누계		11,660,000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모금현황 (2021년도분)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서위, 구정혜, 김갑훈, 김미애, 김병숙, 김수연, 김애자, 김우택, 김정미, 김지영, 김형(한완상), 박연희, 박은실, 박진남, 박혜수, 배정미, 백정희, 소진경, 안정희, 양서영, 오미화, 오영란, 원영희, 유성희, 이숙현, 이영민, 이예린, 이은영, 이주영, 이현주, 임진영, 장선익, 장승희, 정미경, 정영숙, 정정옥, 정정희, 정진숙, 정진희, 조규혜, 조봉자, 조은영, 최수산나, 최은영, 최정애, 함희경, 홍경화, 홍옥순, 홍현정, 무명(2명)	5,753,980
회원YWCA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목포YWCA, 부산YWCA, 사천YWCA, 서울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양YWCA, 양산YWCA, 안양YWCA, 여수YWCA, 울산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제주YWCA, 제천YWCA, 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포항YWCA, 하남YWCA	34,199,430
기관	필리핀YWCA	317,214
교회	반포침례교회, 안산글로벌미션교회, 이화대학교교회, 함께하는교회	9,068,000
합계		49,338,624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1. 10. 1 ~ 12. 27)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10.1~11.30)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형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란, 김주영, 김태연, 김혜경, 나차더르즈 울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상순, 문윤희,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정민,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식,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영희, 이민정, 이영미,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3,005,000
회원YWCA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양YWCA, 김해YWCA, 남원YWCA, 남원YWCA, 대구YWCA, 마산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의정부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전주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포항YWCA, 하남YWCA	3,607,280
어린이집	전주YWCA어린이집	520,280
교회	한양대여성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360,000
개인	김대식, 조승환, 조임근, 백보람	157,040
합계		7,649,600
누계		24,321,630

경인·강원권역

강릉YWCA 이신애 부장

강릉YWCA 회원대회



강릉YWCA는 11월 11일(목) 오후 2시 회원대회를 '초당허균생가'에서 열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에서 진행되었으며, 37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이번 회원대회는 2021년 회원증모 결과를 보고하고, 회원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과 회원 교제를 통해 소속감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회원위원회 주관으로 1부 예배, 2부 방계자 회장의 인사말씀과 임현숙 사무총장의 2021년 회원증모 현황 보고 후 조별로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탄소제로발자국'을 주제로 회원대회장까지 이동 과정의 '탄소제로 발자국 남기기 인증샷'과 탄소제로-O.X 퀴즈, 스티커 붙이기 등 강릉YWCA '신나는 불편운동'과 함께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해YWCA 정미숙 팀장

2021 강원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활동보고회

동해YWCA에서는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동해YWCA 4층 강당에서 강원도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회를 ZOOM을 통해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과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활동보고회를 열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활동을 보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서울YWCA 성지희 팀장

젠더 균형 보도를 위한 온라인 집담회

(사)서울YWCA는 11월 16일(화) 젠더 균형 보도를 위한 온라인



인 집담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젠더 갈등으로 위장된 젠더 이슈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젠더 이슈 보도 실태를 돌아보고 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전현숙 (사)서울YWCA 여성 참여팀 부위원장의 사회로 이정연 기자(한겨레신문 젠더미디어 슬랩), 박정훈 기자(오마이뉴스), 신미희 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했다. 앞으로 우리 언론이 뉴스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 형성을 돕고, 나아가 사회 통합과 성평등 사회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환경교육프로그램 '탄소제로'



원주YWCA는 5월부터 11월까지 총 4기로 나누어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탄소제로'를 진행하였다. 20세 이상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 '재활용품으로 화분만들기', 'EM발효액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 보기', 'EM발효액을 이용하여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EM 흙공 던지기 체험'과 '기후변화 홍보관 탐방'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사)인천YWCA

서순아 팀장

인천 제로웨이스트마켓 활성화 네트워크 출범



(사)인천YWCA와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주관으로 11월 4일 (목) 오전 10시 회관 7층 강당에서 인천의 제로웨이스트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민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자원순환도시로의 근본적인 전환과 쓰레기 배출량 자체의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힘을 모으게 됐다. 이를 위해 향후 네트워크의 인적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제로웨이스트마켓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제로웨이스트마켓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홍보 마케팅, 기타 공동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권역

고양YWCA

남궁해경 국장

기후위기·코로나19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결과보고회



고양YWCA는 11월 9일(화) 흰돌종합복지관에서 '기후위기·코로나19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의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위기시 대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을 위해 고양시 환경정책(온실가스감축계획사업을 중심으로)을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닌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

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시민의 시선에서 제안하고자 기획되었다. 결과보고회에서는 고양시 온실가스의 주배출 원인인 수송 분야, 건물 분야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 정책을 제안하였고, 자원순환정책, 젠더 관점으로 보는 기후위기대응 정책 분야에서도 역시 정책을 제안하였다.

광명YWCA

김단영 간사

Be:전(=Began+Vision) 비건 활동



광명YWCA는 환경과 건강, 동물에 해가 가는 것을 피하는 생활 방식인 비건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무튼, 비건'과 '두 번째 지구는 없다' 2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독서토론과 양식, 중식, 한식 등 다양한 음식을 비건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영화음악 공연 관람



남양주YWCA는 11월 27일(토) 구리 아트홀 대극장에서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만나는 영화음악 '시네마 클래식 데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본 행사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구직회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증진 친목을 위해 이루어졌다. 클래식 영화음악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며 지난 추억을 여행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치유를 받았으며,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잠시나마 음악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부천YWCA

이현순 사무총장

'오늘부터, 비건' 행사 참여



부천YWCA는 11월 20일(토) 송내어울마당 야외공연장 및 1층 로비에서 부천 문화 다양성 확산 실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후 시민들의 제로웨이스트&비건 피크닉 '오늘부터, 비건' 행사에 참여하였다. 최대한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부천YWCA 원미 노인 참여 나눔터 회원들이 중심이 된 '뜨개 창업 공동체'가 참여하여 활동소개, 상품 전시와 판매를 하였다. 이외에도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장난감 병원, 제로웨이스트 샵, 로컬 채식 판매장, 비건 상점, 환경도서 대여, 토종 씨앗 등을 전시 판매하고 공연과 단체별 활동을 알리는 라이브방송을 진행하였다.

성남YWCA

김자혜 주임

민간단체 수질 보전 활동



성남YWCA는 2021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수질 보전 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광주 경안 맑은 물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전체 하수처리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듣고, 직접 보았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자원활동가와 실

무활동가들이 '물 환경 지킴이'로서 함께한 이번 활동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로 YWCA 안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회원들의 실천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YWCA의 운동을 나누었다.

(사)수원YWCA

강은진 간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사)수원YWCA는 11월 23일(화)부터 12월 3일(금)까지 2주간 어르신과 취약계층 200여 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기업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 (주)코레일유통 경기본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매년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김치를 담가 전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이기 어려워 완성품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유아를 위한 그림자 환경인형극 시범 공연



(사)안산YWCA는 11월 한 달간 유아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이상한 동화 나라의 숲을 지켜라」라는 그림자 환경인형극을 제작하여 총 15회의 시범 공연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배달 쓰레기 문제로 인해 오염된 동화 나라의 숲을 구하는 내용으로 '앨리스, 피터 팬, 마녀, 거울' 등 유아들에게 친숙한 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로 구성되어 환경인형극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사)안양YWCA

문찬미 간사

학교 내 불법 촬영 성범죄 대응



(사)안양 YWCA는 11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 범계역 2번 출구 신한은행 앞에서 학교 내 불법 촬영 성범죄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 긴급기자회견을 하였다. 안양 YWCA, 안양여성전화, 안양 나눔여성회로 이루어진 안양여성연대와 지역교육 네트워크 이름과 공동주최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여 안양 시민사회단체가 합류하였고, 많은 시민에게 디지털 성범죄 제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을 알렸다. 이어진 캠페인에는 안양 시의회, 안양시 여성가족과, 동안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도 참가하였다.

의정부YWCA

박혜진 간사

디딤돌 창업동아리 '힉한 언니들'의 '살림 가게' 오픈



의정부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디딤돌 창업동아리 '힉한 언니들'은 11월 25일(목) 의정부역 근처에 제로웨이스트샵인 '살림 가게'를 창업하였다. '살림 가게'는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려는 환경 보호 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살림 가게'를 이용함으로써 단순한 생활용품 교체가 아닌 생활 전반을 스스로 바꾸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남YWCA

김유진 간사

'노래의 향기로 우울증은 NO!' 어르신 합창 교실



하남YWCA에서는 8월 25일(수)부터 11월 24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총 12회차로 회관에서 '노래의 향기로 우울증은 NO!' 어르신 합창 교실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연스럽게 야외활동이 줄면서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합창 교실은 노인들의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였으며 스스로 내일을 살아갈 삶을 응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충청권역

논산YWCA

조은숙 주임

같이할까? 엄마 심(心)부름 가족 마당극



논산YWCA는 11월 22일(월) 논산문화원 다목적홀에서 가족 마당극 '효녀 심청이가 왔다'를 공연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와 아동이 한팀이 되어 소통과 공감 대화 방법을 알아보고, 가족들을 서로 즐겁고 행복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올바른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없었던 만큼 일상의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공동 양육으로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여성안심캠퍼스타운조성사업



(사)대전YWCA는 2021년 9월부터 대전광역시, 대전경찰청, 지역 내 3개 대학(배재대학교,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인권센터)과 협약을 맺고 대학 캠퍼스 내외부의 우범지역을 주-야간으로 순찰하고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을 진행하는 여성 안심 캠퍼스 조성사업을 하였다. 또 폭력 예방캠페인을 진행하여 대학교 주변의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갔다. 캠퍼스 내 우범지역에 대한 인식조사와 호신용품 및 폭력 예방리플렛 배포를 통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대처,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였고, 대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여성 안심 설문 조사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캠퍼스와 대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세종YWCA

양유정 간사

2021 세종YWCA 후원의 날



세종YWCA는 11월 23일(화) 오후 4시부터 세종시민회관 대강당에서 2021년 세종YWCA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특강 및 문화공연, 3부 다 함께 나눔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번 후원의 날은 9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 시간이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양성평등



제천YWCA는 11월 2일(화)부터 12월 9일(목)까지 10회에 걸쳐,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관 초·중·고등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언어습관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퀴즈, 활동지,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적 언어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 속에서의 언어습관을 고쳐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2020년 제천YWCA에서 '성평등 활동가 양성학교'에서 배출한 수료생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 강사 역량이 지역 성평등 역량으로 연계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YWCA

곽효정 팀장

청(소)년 운동 '2021년 애들아, 밥 먹자! 떡국 떡 전달식'



천안YWCA는 11월 2일(화) 병천중학교 학생들에게 '2021년 애들아 밥 먹자! 떡국 떡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등굣길에 주먹밥을 나눠주는 대신 떡국 떡 전달을 통해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성장기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우리 쌀 소비촉진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사)청주YWCA

한기연 간사

2021년 충북 여성영화제



(사)청주YWCA에서는 11월 4일(목)부터 11월 6일(토)까지 3일간 진행된 2021년 충북 여성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한국 여성영화의 어떤 경향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영화 11편을 상영했다.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충주YWCA

김세희 부장

평화로이 캠프



충주YWCA는 지난 10월 16일(토), 11월 6일(토), 11월 13일(토) 총 3회기에 걸쳐 충주시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평화로이’ 캠프를 진행했다. ‘평(平)화를 말(話)하고 평화통일의 길(路)을 이루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평화로이 캠프는 평화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아동들이 스스로 평화를 외치며 평화통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한반도 분단의 역사 교육, 지역 내 6.25 전적지(동락전승비) 답사, 한반도 율놀이, 새터민 특강, 통일 방탈출 게임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경상권역

거제YWCA

박숙혜 간사

‘집콕놀이미술 - 오늘은 아이랑 집에서 뭐 하지?’



거제YWCA는 경남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10월 15일(금)부터 11월 1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집콕놀이미술 - 오늘은 아이랑 집에서 뭐 하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부모가 직접 미술을 배워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놀이 미술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책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며, 독서로 생각을 열고 미술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미술에 자신이 없는 부모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 기법을 사용했고, 아이들의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과 함께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일일 드라이브 브런치 행사 개최 및 내의 기증



김해YWCA에서는 10월 21일(목) 회관 앞에서 홀로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일일 드라이브스루 브런치 행사’를 진행했다. 2020년에 이어 드라이브스루로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의 홀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내의를 지원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홀로 어르신들의 지원

필요성과 급격한 날씨의 변화로 도움이 손길이 더욱 절실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와 농협은행 김해시지부 등 관계기관의 동참으로 더 많은 홀로 어르신들에게 내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대구YWCA

김혜원 차장

트렁크 비우GO! 환경 사랑 채우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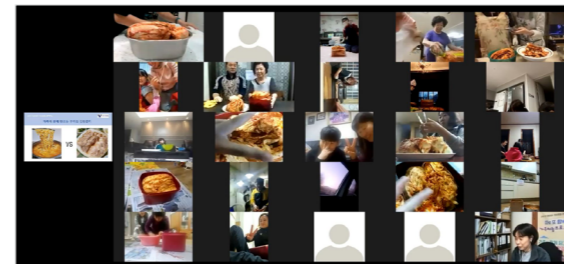


(사)대구YWCA는 11월 6일(토) ‘카부츠 베품시장’을 진행하였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판매되면서 기쁨이 되고, 작은 용돈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경험은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경제교육의 장이 된다. 베품시장 외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대구YWCA 부속기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공간은 돌아가는 두 손을 가볍지 않게 채워주었고 난타, 풍선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 공연은 참여자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마산YWCA

석예은 간사

가족이 함께 담그는 우리 집 김장김치



마산YWCA는 2021년 양성평등 문화마당행사를 맞이하여 11월 12일(금), 11월 13일(토) 양일간 ‘가족이 함께 담그는 우리 집 김장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취지인 양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가족 2인 이상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국전통 김장김치를 소개하고, 가족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 서로 역할을 나누었다. 행사에는 부모-자녀, 3대 가족,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참여하였다.

부산YWCA

최수정 간사

부산YWCA 75주년 기념 생명·평화를 위한 북 콘서트



부산YWCA는 11월 17일(수)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생명·평화를 위한 북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델리카토 앙상블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산에 정착하여 살아온 북한 이탈 주민 차명철의 소설 ‘무궁화’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북한 이탈 주민 시니어공연단 하나 올림의 무대와 아이씨밴드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부산시민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장이 되었다.

양산YWCA

김유경 간사

리빙랩 프로젝트 전통놀이 프로그램 행사



양산YWCA는 11월 11일(목),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 실험(리빙랩)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양산역 공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놀이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하였다. 양산 리빙랩에서는, 노인도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주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생산적·사회적 주체가 되어, 시민사회에서 점점 소외되어 가는 노인의 역할과 활동을 새롭게 재해석해 보았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평화, 청년들의 목소리로 외치다



(사)울산YWCA는 11월 19일(금)부터 11월 21일(일)까지 2박 3일간 13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안보 상황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평화, 청년들의 목소리로 외치다'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의 후원을 받아 제주도 일대를 탐방하며 제주 4.3사건을 이해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꿈꾸고자 기획되었다. 청년들은 본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새 시각을 열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다시 찾은 2021 미리 크리스마스



진주YWCA는 11월 26일(금) 회관 3층 강당에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지역의 이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민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다시 찾은 2021 미리 크리스마스'를 진행했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소통의 시간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연대를 통해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놀이와 힐링의 시간이 준비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마음나눔이 소홀했던 지난 시간을 쓰다듬는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진해YWCA

권영주 간사

기도주간 맞이 기도회 및 친선대회



진해YWCA는 11월 11일(목) 오후 3시 30분, 세계 기도주간을 맞이하여 회관 교육장에서 5개 지역의 YWCA, YMCA와 함께 기도회 및 친선대회를 했다. 각 단체 5명 내외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27명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을 섬기고, 기독 정신에 기반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연대하고 지지하기로 결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아울러 일 년간 실시간 헌 옷업 사이클링 프로그램 작품전시회를 함께 열었다.

창원YWCA

이선미 간사

평화통일 강의



창원YWCA는 11월 5일(금)과 11월 29일(월), 2021년 '평화통일 아카데미-강사 양성 과정'에서 양성된 강사 4명과 함께 평화통일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에게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덕목 '평화 감수성'을 심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1년부터 강사 활동을 시작한 신입 강사들은 앞으로 꾸준한 활동을 통해 더욱 역량이 향상될 것이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우리 동네 제로웨이스트

통영YWCA는 2021년 11월 3일(수)와 4일(목) 양일간, 통영시여성회관 앞에서 '우리 동네 제로웨이스트'라는 주제로 장날을



진행하였다. 이번 장날은 통영 지역에 제로웨이스트를 알리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되도록 수거할 뿐만 아니라 아이스팩을 활용한 디퓨저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되어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기후위기 대응 실천-청소년이 그린(Green)환경



포항YWCA는 11월 30일(화) 회관 강당에서 '기후위기 대응 실천-청소년이 그린(Green)환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청소년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포항YWCA에서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과 함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소년들이 동참하고 함께 실천함으로써 환경 보호의 중요함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행되었다.

전라-제주권역

광양YWCA

이효진 간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

광양YWCA는 11월 23일(화) 포스코 복지센터 대식당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을 열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매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함께 지원하여, 김장김치 4000포기를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사)광주YWCA

서정현 부장

가을 장날 개최



(사)광주YWCA는 지난 11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비닐봉투NO! 장바구니YES!'라는 슬로건으로 가을 장날을 개최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자 열 체크 및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년 만에 대면으로 가을 장날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다양한 품목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사, 위원, 회원들과의 풍성한 잔치를 만들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광주YWCA는 이번 장날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이봉투를 사용하여 환경 사랑을 실천해보는 기회를 얻었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2021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교육

군산YWCA는 10월 25일(월)과 10월 26일(화) 양일간 4회에 걸쳐, 총 1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군산 시니어클럽에서 '2021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번 교육은 소비자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의약품 정보 제공 및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을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좀 더 쉽게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YWCA가 지역에서 소비자 관련 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남원YWCA 박희정 간사

창립 30주년 이사·위원 기도연구모임



남원YWCA는 10월 13일(수) 오후 2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사·위원기도연구모임을 가졌다. 유정이 회장과 이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진행 과정을 논의하였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1부는 기념 예배와 2부는 기념식 순서로 진행하며, 비전선언문과 차세대를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캠페인



(사)목포YWCA는 11월 26일(금)부터 11월 27일(토) 이틀간 목포시민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상대의 동의 없는 신체 불법 촬영·시청·유포 모두 성범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인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는 불법 촬영과 동영상 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청과

유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 이 캠페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개념과 유형이 작성된 전단지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내용을 홍보했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쿠킹버스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콩나물 키우기 체험



서귀포YWCA와 서귀포시보건소는 11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천지동 경로당에서 코로나 19 심리방역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교육 및 콩나물 키우기 체험'을 천지동 노인회 회원 대상으로 진행했다.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활용 식생활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노인의 식생활 건강을 위해 고혈압 및 당뇨 예방 식사방법, 실천방법, 나트륨 배출을 돕는 식재료 소개, 콩나물 키우기 홈가드닝 방법, 가정 내에서 심리방역을 돕기 위한 제주 콩을 활용한 콩나물 키우기 체험을 포함한 다. 쿠킹버스 홈페이지에는 로컬푸드를 활용해 개발한 건강 식생활 요리법을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가을 소풍



(사)순천YWCA는 11월 15일(월) 고산치유 마을에서 이사연수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가을 소풍'을 진행하였다. 이번 이사연수회에서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에서 힐링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YWCA의 추억과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와 맞물려 기후위기 시

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고,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업사이클링 유리공예와 식물치유를 통해 나의 깨어짐으로부터 성숙해지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었다.

(사)여수YWCA 김예랑 간사

청소년 어울림마당 에코그린데이



(사)여수YWCA는 11월 20일(토) 오후 2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에코그린데이를 진행했다. 예년에는 에코그린데이는 아나바다 나눔 장터와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백과더(TV 프로그램)'를 모티브로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비대면 요리 교실을 운영했다. 요리는 스테이크로, 요리재료를 사전에 배달한 후 함께 ZOOM을 통해 함께 만드는 방법으로 운영됐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지역 법인화 추진 YWCA를 위한 재구조화 지원교육



익산YWCA는 11월 10일(수) 대강당에서 지역법인화 추진YWCA를 위한 재구조화 지원교육을 진행하였다. 익산YWCA 임직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박동순국장, 송록희부장, 이혜련부장이 방문하여 재구조화의 필요성 및 방향,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법인이사의 책무성, YWCA 지역법인 설립 세부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후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막연하게 느

껴졌던 법인설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이번 지원교육을 통해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앞으로 익산YWCA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재구조화의 방향성과 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2021 전주YWCA 회원 한마당 '우리함께, 얼썬!' 웃음꽃 만발



전주YWCA는 11월 18일,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원활동가, 회원 등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회원한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 위드 코로나 단계에 맞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조심스럽게 대면으로 회원한마당을 진행했으며, 모처럼 회원들도 맘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날 행사는 회원 한마당과 함께 뉴트로 아나바다 운동 '플리마켓'과 회원 사진전을 함께 진행해 더 풍성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플리마켓 판매수익금은 '탈핵생명기후위기대응운동' 기금으로 사용된다.

(사)제주YWCA 박슬기 간사

중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제주YWCA는 12월 1일(수) 중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개소했다. 제주도 지역의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본 아카데미는 전문강사진의 학습지원 및 멘토링(국·영·수·사·과),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 전문체험활동, 특별지원프로그램, 청소년 생활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이달의 생각

제목	필자	월	쪽
연대와 협력의 100년 위기를 희망한다	김은경	1-2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원영희	3-4	04
다양성과 포용성의 YWCA	오영란	5-6	04
사회를 이끌어갈 YWCA 청년들	서다미	7-8	04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함희경	9-10	04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원영희	11-12	04

기도회·말씀 묵상

제목	필자	월	쪽
YWCA 99년, Beyond 100년!	김형국	3-4	06
"청년이여, 의심하라"	김효진	5-6	05
간증과 고백으로 드린 7월 월례아침기도회	편집실	7-8	05
지혜의 딸들, 환대로 구원하다	김성희	9-10	05
버리고 비우며 낮아진 성탄이야기	강교자	11-12	05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해 함께 걷는 기도순례	구정혜	11-12	39

기획

제목	필자	월	쪽
한국YWCA 99주년, 100년을 넘어	편집실	3-4	05
한국YWCA 99주년 회원선언	YWCA 회원	3-4	09
한국YWCA 창립 99주년 탈핵기후생명선언	YWCA 회원	3-4	10
정의로운 기후위기 해결과 에너지 전환	이영경	5-6	06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질문들	이유진	5-6	09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YWCA의 작은 실천	이현주	5-6	12
핵발전은 탄소중립사회 대안일 수 없다	한국YWCA 성명서	5-6	13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	편집실	7-8	06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공동위원장 3인 포부	김숙희, 서다미, 원영희	7-8	08

한국YWCA 100주년 엠블럼 발표	100주년 준비팀	9-10	06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자문위원회에게 듣는다	100주년 준비팀	9-10	08
한국YWCA, Beyond 100! 한국YWCA 역사전시관, 채플실 개관	100주년 준비팀	11-12	06
한국YWCA, Beyond 100!	100주년 자문단	11-12	08

기후위기와 여성

제목	필자	월	쪽
여성의 눈으로 본 3.11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이윤숙	3-4	16
이제 탈성장을 말할 때다	장이정수	5-6	14
생태 슬픔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윤숙	7-8	12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 전환 사회로	이윤숙	9-10	10
대선에서 기후보다 더 무엇이 중한디!	이윤숙	11-12	12

평화·탈핵기후위기

제목	필자	월	쪽
빌 게이츠의 탄소 배출 없는 핵발전론에 대한 반론	조천호	3-4	18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정성장	5-6	18
남북 여성 교류 30년, 돌아보고 내다보다	최수산나	5-6	22
정의로운 2030 탄소감축과 기후정의	황인철	9-10	12
선언만 난무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그만!	이현석	11-12	12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최수산나	11-12	24

성평등

제목	필자	월	쪽
다른 진보, 다른 민주주의	김은주	3-4	12
청년 '남성' 당대표와 성차별주의	권수현	5-6	16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	이한빛	7-8	18
성평등 활동 보고서 : 공공홍보물 차별 표현 모니터링	이한빛	7-8	36
YWCA 양성평등 임금의 날	이한빛	9-10	16
월간 성평등 토론회	이한빛	11-12	16

청년토크

제목	필자	월	쪽
비대면 플랫폼, 이제는 익숙하지?	대학·청년Y	3-4	14
청년의 산재 사망	대학·청년Y	5-6	20
주린이 이야기	대학·청년Y	7-8	14
청년 주거	대학·청년Y	9-10	14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	대학·청년Y	11-12	14

로컬프렌들리 이야기

제목	필자	월	쪽
우리는 왜 군산으로 갔는가	김수진	5-6	26
여행지가 아닌 여행처럼 사는 군산	김수진	7-8	14
외지인에게 고향이 되어줄 동네를 찾아서	김수진	9-10	20
군산살이 3년차,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수진	11-12	19

이슈포커스

제목	필자	월	쪽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의 의미와 과제	류홍번	3-4	2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방세 감면을 위한 국회긴급토론회	조지혁신지원국	7-8	22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설왕설래	김엘리	9-10	23

YWCA 변화와 혁신

제목	필자	월	쪽
무엇이 달라지는가	박동순	1-2	
창립 100주년 넘어 YWCA의 새로운 전환	박동순	3-4	25
창립 100주년 앞둔 YWCA,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직으로	박동순	5-6	24
지역법인화 후 법인 책무성 검토해야	박동순	7-8	25
YWCA 지역법인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송호영	9-10	26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의 개념과 유의사항	김일석	11-12	24

이달의 현장

제목	필자	월	쪽
미안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YWCA 캠페인		3-4	27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캠페인		3-4	28
기후위기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식		3-4	30
지구의날 기념식		3-4	32
세계여성의날 YWCA캠페인		3-4	34
한반도 종전평화 집중행동		3-4	35
P4G 그린위상을 반대하는 기후행동캠페인		5-6	30
YWCA 탈핵기후행동학교		5-6	32
YWCA 신입실무활동가·신임이사 교육		5-6	34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인도YWCA 지원 모금		5-6	37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목요기도회		5-6	38
2021 여성주의 연합예배		5-6	40
버마-미안마 플랫폼 발족식		7-8	27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1주년		7-8	28
인도코로나 극복을 위한 1922 릴레이모금 캠페인		7-8	30
8.15 한반도평화 공동기도주일		7-8	31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엽서캠페인		9-10	28
MZ세대와 함께하는 2021 YWCA 여성평화순례		9-10	31
9.25 기후위기 집중행동의날		9-10	34
한국YWCA 정책협의회		9-10	36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개최		11-12	26
세계 YM/YW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11-12	28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11-12	30
세계 여성폭력 추방 검은 목요일		11-12	32
사랑채방 : 김초엽 작가		11-12	34
제25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 콘텐츠 시상식		11-12	36

칼럼

제목	필자	월	쪽
YWC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	편집실	3-4	36
제6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관기	이한빛	3-4	38
창설자 김필레 선생, 건국포장 수상	편집실	7-8	11
지방세특례제정법 개정 촉구 입법 활동	조직혁신 지원국	7-8	21
탈핵비상선언대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편집실	7-8	32
탈핵비상선언대회	편집실	7-8	35
기독교청년학생운동,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	김수진	9-10	42
2022 제20대 대선 정책 의제	연합회	11-12	42

논평 및 성명서

제목	필자	월	쪽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	연합회	3-4	44
YWC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연합회	3-4	37
YWCA 탈핵비상선언문	연합회	7-8	33
기후위기 대응 포기하고 민주주의 왜곡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규탄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7-8	39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수립하고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9-10	38
COP 자체가 문제임을 드러낸 COP26, 또 다시 기후정의를 외면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11-12	48
안전한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	탈핵대선연대	11-12	49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퇴원 후에도 지켜드릴게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란?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입원 후 120일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

실시기관

- 환자지원팀이 설치된 전국 요양병원 (정신·재활병원 제외)
- '공단 홈페이지 - 병(의)원찾기'에서 실시기관 검색 가능

신청방법

-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상담

퇴원환자지원 절차

1. 대상환자 선별 : 퇴원환자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욕구가 있는 환자 선별
2. 환자지원 심층평가 :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의료 외 경제·심리사회적·퇴원계획과 관련된 문제 등 퇴원 후 어려움에 대해 파악
3. 퇴원지원 표준계획 수립 : 환자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위한 퇴원 계획 수립
4.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2022 YWCA 신년예배·사무총장 취임식에 초대합니다

1922년,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기독교 여성들이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 창립한 한국YWCA가 2022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넘어, 시대의 소명에 따라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한국YWCA가 2022 YWCA 신년예배와 사무총장 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100주년의 기대와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2년 1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유튜브 중계(YWCA KOREA 계정)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원 영 희

* YWCA 유튜브 계정(YWCA KOREA)을 통해 당일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 유튜브 접속 URL은 당일 오전 이메일/문자로 공유될 예정입니다.